

가르치게 되고 몸으로 배우면 나누게 된다! - 도담 작은도서관

☆ 그림책은 애들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책은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나를 위로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리버펠리스 작은도서관

☆ 놀이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놀면서 많이 생각 날 것 같아요. - 빛나요 작은도서관

☆ 요즘 아이들의 빠빠한 일상에 지쳐 놀 시간도 없을 뿐더러 놀 기회, 놀 친구가 없다. 핸드폰 게임으로 감정표현도 힘들다. 놀이를 통해 운동능력 뿐 아니라 사고, 창조력, 연구, 판단력, 사회성, 정서성이 함양된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과 더 잘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며 이렇게 1차, 2차 그림책 워크숍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놀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김장성 작가님 김지현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며 좋은 그림책과 놀이로 신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합니다. - 동문그린 작은도서관

☆ 김장성 작가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동화책의 작가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림책을 문학의 한 분류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동안 진짜 '그림책=동화책' 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림책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 매력 속으로 빠져보고 싶네요.^^ -도담작은도서관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가장 긴급한 부문을 지원하고자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지원받기는 어려운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는 작은도서관 '사람'과 '공간' 그리고 '장서', '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은 경쟁적 공모이기보다는 지역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나눔 공모이기를 희망합니다.

-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공고문 중

전국 50개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했습니다. 선정자교육과 전체교육, 실사를 통해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노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는 이름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사업 이후에도 씩씩하게 작은도서관 운동의 길을

나아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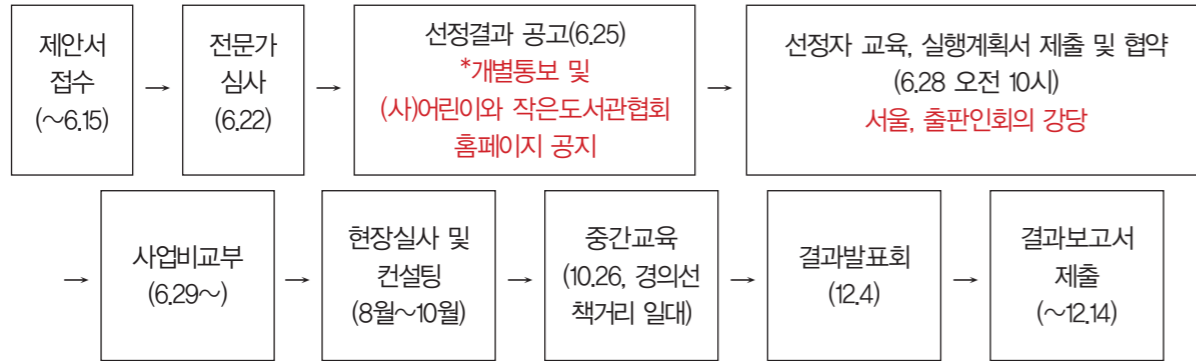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14일

■ 사업개요

- 신청 대상 : 작은도서관등록증 기준 3년 이상 운영 중인 전국 사립 작은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사업,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 선정 도서관은 제외)
- 지원 내용 : 인건비성 경비, 공과금, 임차료, 시설보수비, 자산취득비
- 지원 금액 : 선정 도서관(50개관 내외) 각 3,000,000원 내외 차등 지원

■ 사업추진일정



■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추진 결과 (총 62개관 신청, 그 중 50개관을 선정)

가. 운영에 따른 분류(%)

-	총	개인	교회	단체	아파트
선정	50개관(100)	12개관(24)	7개관(14)	24개관(48)	7개관(14)

나. 지역에 따른 분류(%)

-	총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
선정	50개관 (100)	5개관 (10)	9개관 (18)	7개관 (14)	1개관 (2)	9개관 (18)	8개관 (16)	9개관 (18)	2개관 (4)

다. 지원 항목 순위(중복 지원 가능)

-	자산취득비	인건비성경비	임차료	시설보수비	공과금
선정 도서관	25개관	20개관	14개관	8개관	11개관
지원 금액	41,730,000	46,200,000	32,058,780	16,630,000	7,611,220

*지원 금액 : 총 144,230,000원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사업 선정 도서관 소개

1. 강아지똥 작은도서관

#경기 고양시 #자산취득비

#강아지똥작은도서관 #일산의 터주대감 #사람이 주인인 도서관

강아지똥 작은도서관은 일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오래된 동네의 모든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일산의 터주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분들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모습도 다양해서 사는 이야기도 다양한 도서관이지요. 서로의 이야기가 신선하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과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서관이지요. 책을 읽는 공간이기보다는 책을 배경으로만 두고 사는 이야기가 더 많은 곳이 우리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너무도 심심해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모두가 기쁘게 박수쳐 주는 도서관입니다. 우린 우리 도서관이 책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것이 늘 좋습니다.

#도서관 산업혁명 #새로운 세상

우리 도서관에는 컴퓨터가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어야 하는 기계였지요. 관리자만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하는 컴퓨터 때문에 새 컴퓨터가 생기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관리자 컴퓨터와 이용자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자도 이용자도 모두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프린터가 생겨서 거침없이 라벨을 인쇄하니 모두들 탄성을 질렀습니다. 더군다나 무선 프린터였거든요. 잉크 걱정도 없는 기계여서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만 보는 도서관에서 일도 돕는 도서관이 되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관리자 없이도 인쇄가 가능한 것, 무선으로 인쇄가 되는 것, 어떤 종이도 물리지 않고 술술 잘 나오는 신박한 프린터 덕분에 관리자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도서관의 산업혁명쯤 되는 사건입니다. 조심스럽게 인쇄할 것이 있는데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회원에게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잉크 걱정 없는 프린터기 덕분입니다. 우린 컴퓨터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잘 웃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



고 잉크 걱정도 없고 고장 날 걱정도 없으니까요. “좋기는 참 좋다”라는 말을 서로 웃으면서 합니다.

처음 이용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는 괜히들 자기 이름 검색해서 몇 권 읽었는지 보고 가셨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구요. 가끔 아이들이 이용자 컴퓨터로 영상자료도 보는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보는 모습을 보기 좋다고 하십니다. 자기 핸드폰 혼자 들여다보는 아이들만 보다가 같이 앉아서 보는 모습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아빠의 관심

세 아이를 우리 도서관에서 키우다시피 한 가정이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빠가 새 컴퓨터가 들어온 날 아이들 엄마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퇴근하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보시더니 정말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동안 도서관 컴퓨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으셨는데 진짜 잘됐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고 가시는데 그냥 우리들도 웃었습니다. 새 살림이 들어온 도서관에 그 무덤덤해 보이시던 아빠의 축하 한마디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관심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야 우리들이 쓰는 기계니까 좋아한다지만 그 아빠가 좋아하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마치 그동안 우리들이 그분의 많은 관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가짐이 새로워졌습니다.

#2019년 강아지똥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더 많은 영상자료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은 CD를 가져와서 서로 먼저 보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고 협의하는 모습 자체가 소통과 화해를 이뤄가는 작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더불어 동네 문구점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요청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와드립니다. 나눕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인쇄 작업 등을 소개하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2. 광림작은도서관

#전라남도 여수시 #시설보수비



#광림작은도서관 #어르신그림책읽기

광림작은도서관은 여수에서 유일하게 주택건물을 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거의 없지만 공부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그림책읽기 등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 작은도서관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문화운동을 계속해서 펼쳐 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야보일러 고장 #곰팡이 냄새

광림작은도서관은 추웠습니다. 오래된 심야보일러가 고장 나서 작년 한 해는 난로 하나에 의지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용자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차가운 공간이어서요. 냉기도 그렇고 보일러 시설이 있는 곳에 지붕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이 새는 등 보일러실 안의 곰팡이 냄새도 심하였습니다.



#보일러 교체 #따뜻한 공간 #어르신들 더 놀다가세요

광림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님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공간을 빌리는 곳에서는 후원금을 임대료로 납부해주시기도 합니다. 소액의 경제적인 문제는 각오한 일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도서관운영을 꾸려가고 있지만 큰 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긴급지원119사업에 신청이 되고 보일러 교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일러 교체가 없었으면 올해도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긴급지원119사업을 만나 무조건 따뜻하고 온기 있는 도서관이 된 지금은 자신 있게 “어르신들 더 놀다가세요~”라고 웃으며 얘길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책을 마음껏 보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으로 거듭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웃으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다행이라고 이제 춥지 않겠다고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고맙다고 정말로 잘 되었다고~말입니다.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나서 행복합니다.



#2019년 광림작은도서관은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주택에 있는 유일한 도서관이고 힘들게 세워졌는데 다시 시작해보자는 운영위원님들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상님 덕분에 출세했다.’는 인사는 참 뿌듯합니다.

지역축제에서 어르신 한분의 시화가 우수상으로 뽑혀서 상금도 받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잠시 머물다 수다 한 보따리 풀어놓고 가실 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할까요~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행복하게 만듭니다.

2019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본격적인 수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만족도가 높으셔서 내년에도 더 알차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추억의 에너지를 웃음으로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서트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작은 문화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다보면 광림작은도서관만의 색깔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있는 중형병원의 직원들도 가끔 이용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시작은 미흡하겠지만 운영위원 및 이용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3. 금빛마을작은도서관

#경상남도 진주시 #아파트작은도서관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금빛마을작은도서관 #금산면 동네 사랑방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2008년 1월 16일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가입한 회원이 4,950명에 이를 정도로 진주시 금산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화공간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요일별로 오전에는 성인 강좌와 오후에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방학 때는 개관기념 행사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여름 방학 때는 1박2일 독서캠프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독서캠프는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꿈과 생각 등을 이야기하며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호지가 생겨난 이야기-푸르미르 그림책

또한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매년 진주시 평생학습과에서 선정하는 작은도서관 중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금산면의 동네 사랑방입니다. 2017년에는 진주시 12경 중의 하나인 금산면에 있는 금호지의 전설을 ‘금호지가 생겨난 이야기-푸르미르’라는 그림책으로 만들었으며, 초등학교 두 군데의 수업시간에 빛그림을 상영하여 지역 사랑하는 마음과 역사에 대하여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빛그림을 상영하여 지역의 전설을 알렸습니다. 푸르미르 책 판매 대금은 진주보육원과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기부하였습니다. 현재 금호지는 푸르미르 금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밤이 되면 야광 조명으로 그림책의 내용을 걸어가며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놀이터입니다.



#컴퓨터 구입 #신속한 진행 #도서관 홍보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개관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개관 시 구입했던 컴퓨터와 복합기가 너무 오래되어 대출반납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한 컴퓨터 덕분에 이용자들이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컴퓨터가 기능이 떨어져 영상을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도서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복합기가 새로 들어와 관리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인쇄물을 충분히 출력할 수 있게 되어 도서관 홍보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 #책임감

인건비 지원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담당자가 생겨 가장 좋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게 되면 봉사하는 시간 이외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책임감이 많이 결여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지원됨으로써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지원을 해주니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전체 서가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서가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지만, 책임지고 진행할 담당자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니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도서관에서 진행한 일 중 가장 뿌듯한 일이 되었습니다.



#활기 속속 #만족도 향상

지원을 받고 나서, 도서관이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이는 이용자와 더욱 소통이 잘 되게 하여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 더 친절하게 이용자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야~ 일 할 맛나네.”

어느 봉사자의 말입니다.

“오늘은 무척 빠르네요?”

도서관 늘 오는 어느 초등학생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제가 무척 흐뭇했습니다.

#2019 금빛마을작은도서관은

사실 인건비가 중단되면 그동안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받았던 봉사자들이 그만 둘까 가장 걱정입니다.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서 봉사자들의 교통비 지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자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자원봉사자 교통비 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순회 사서 파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며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4. 길벗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차료



#길벗어린이도서관 #지역의 사랑방 #다양한 활동 시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계양구에서 가장 운영이 활발한 도서관입니다. 평일에도 아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도서관으로 지역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서문화활동이 저조한 지역에 길벗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시도하는 도서관입니다.

#폐관 위기 #긴급지원119로 #공간의 안정화

후원금으로만 운영하여 항상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2018년 초반 들어 후원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반기는 겨우 버텼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하게 폐관까지 생각하는 중에 119 지원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받고 공간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한 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 #운영진 교체 원만 #시즌2

5개월간 임대료를 지원받고 도서관의 공간과 운영은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안정은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이끌었고, 각종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진행 및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폐관 위기까지 왔던 도서관은 새로운 운영진의 교체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길벗어린이도서관은 안정적으로 시즌2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곳 #뭔가 꾀하는 곳

공간이 안정화 되면서 이용자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또한 관심도 많아져서 도서관은 상반기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원도 늘어나고 모임도 활성화되어 도서관은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뭔가를 꾀하는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2018년

사실 폐관까지 걱정하고 있을 때 긴급지원 119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안정화가 안 되니 모임도 활동도 프로그램도 조금은 위축된 감이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반기에 공간이 안정화가 되면서 도서관은 상반기보다 엄청 활기차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모집도 원활해지며, 이용자도 늘고 동아리 모임에 새 인원도 들어와 동아리 모임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긴급지원 119덕분입니다. 길벗어린이도서관에게 5개월간의 지원은 물이 떨어져 가는 곳에 부어진 마중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119지원을 통해 운영진들은 힘을 얻어 활동가들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길벗어린이도서관은

긴급지원119 사업으로 공간이 안정화가 되면서 새로운 운영진을 만나게 되고, 새 운영진을 통해 길벗어린이도서관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벗어린이도서관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건비성지원 #공과금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동네도서관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의 매력이라면 도서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주민들(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의 손으로 일궈졌다는 거겠지요. 도서관의 한 곳에 앉아서 도서관을 휘~ 둘러보면 너무도 경이로운 도서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곳 하나라도 우리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정성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을 주민들이 애정 어린 이용을 기다리며 공들여서 만든 곳곳이라는 것, 가장 사랑하고 싶습니다.

#재정고민 #활동가의 활동비

무엇보다도 도서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도서관이 영리단체가 아닌 만큼, 거기다가 사립도서관이다보니 더더욱 재정 고민으로 어깨가 항상 무거운 상태이니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활동가의 활동비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하는 형편이라 활동의 지속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답니다. 한시적이지만 인건비를 받게 된 활동가, 그 이후에 일들은 더 쓰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참 감사드려요. 더불어 귀 단체 덕분에 여름에 에어컨을 편안히 틀 수 있었다는 것, 또한 감사해요.

#여유가 생기자 도서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문을 열어놓고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힘껏 무언가를 하다가 돌아보면 '이런 사업들은 왜 했을까' 하는 사업들도 종종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에너지와 예산을 들이게 되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함에도 좀 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말이지요. 사업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운영자들끼리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들도 사업에 쫓겨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긴급지원119사업이 저희 도서관에 준 선물은 지원되는 시간 동안 그런 여유의 마음을 갖게 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걱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공간이 생기는 시간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해 보고 이야기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꿈꾸던 행사를 하다.

2018년도에는 저희 도서관이 몇 년 동안 계속 계획만하고 진행하지 못했던 '작가와의 만남'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한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을 학교에 가서 했고, 또 한번은 저희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도서관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진행한 행사라서 저희 도서관만의 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녹록치 않다보니 보람이 없으면 계속하기 정말 힘이 들지요, 작은 활동 하나라도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녹여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꼭 빈번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 말할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시간들이 운영자로서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2018년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만의 배짱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19년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은 매년 총회를 치르고 있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바로 총회의 시기가 되는 만큼 준비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도서관을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 마을에, 책이 있는 사랑방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여전히 전합니다.

대략 내년에도 우리 도서관은, 변함없이 마을의 엄마들이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가꾸어 온 이 공간에 주민들이 북적거리고 그 안에서 사회

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이야기들이 오가게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지요. 더불어 도서관과 함께 하면 좋은 점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깥에 더 떠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해요.

6. 꿈꾸는달팽이작은도서관

#경기도 하남시 #임차료



#꿈꾸는달팽이작은도서관 #꿈과 추억 만들어가는 곳
꿈꾸는달팽이작은도서관은 꿈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의 아주 작은도서관입니다.

#긴급지원119 #숨통

저희는 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덕분에 도서관 상근활동가의 인건비를 조금 드릴 수 있었어요, 어려운 도서관 살림에 숨통을 조금 트일 수 있었습니다. 숨통을 틔운 김에 화장실 설비를 고치려고 했는데, 건물주 어르신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고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락방 #따뜻함을 간직한 곳

이용자와 주민들은 꿈꾸는달팽이작은도서관을 다락방 같은 곳이라고 하세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입은 상처들이 잔잔하게 아물어가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랄까. 서로 격려하며 힘내어 일상에 도전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따뜻함을 간직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류하는 장

몇 달간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는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도서관 이용자의 연령과 활동가들이 변하면서 의식적으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리를 펼쳐보려 합니다.

#2019 꿈꾸는달팽이작은도서관은

2019년,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었던 2013년 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요. 처음처럼 가까운 이웃들과 만나고, 함께 부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해요. 특히 자연과 가까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이 하는 우리 도서관만의 창의적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7.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서울시 관악구 #공과금 #임차료

#사서들이 작은도서관 운동을 표방하여 만든 최초 작은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1989년 10월 3일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달동네 난곡에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으로, 남부고등공민학교라는 교실 한 칸을 얻어 시작했습니다. 교실이라고 하니깐 번듯한 건물을 상상하실 텐데요~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겨우 합판을 이어서 만든 다 쓰러져가는 나무 건물이었습니다. 책장도 나무가 아니라 앵글로 만들었고, 동네 형이 만들어 준 뽕뽕뽕한 글씨로 새겨넣은 간판 “난곡주민도서관”. 전화도 없어서 남부고등공민학교의 전화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30년 전에 시작된 작은도서관이 지금도 난곡지역에서 3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숲은 가장 오래된 작은도서관이자, 도서관 운영의 주체로서 ‘사서’들이 작은도서관 운동을 표방하여 만든 최초의 작은도서관일 것입니다.



#새숲회 #주민 스스로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그래서 처음부터 자원활동가가 아니라 실무자(사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도서관의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스스로 도서관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1990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역청년들과 함께 ‘새숲회’라는 운영조직을 만들어 도서관 운영에 대

해 전면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새숲회는 지금도 사단법인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의 원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4번의 문 닫을 뻔한 위기를 3번의 이사를 통해 어렵게 극복해왔습니다. 현재 공간은 2015년 1월 17일에 이사를 왔는데 4년간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새숲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현재는 108평(399.6㎡ - 전용면적 80평), 장서 18,000권의 규모를 갖추고, 마을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편안한 도서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서관, 주민 스스로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2018년

현재 건물로 이사 오기 전에 새숲은 25평 작은 공간에 15,000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서 사람이나 책이나 모두 과포화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별도의 모임방이나 교육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주민사업을 벌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전유하는 공간이 될 것인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고, 새숲 운영진들과 주민들은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의 결과가 뻔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었으나 마을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새숲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1월에 현재의 공간으로 이전을 했는데 현재 공간은 시유건물을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간을 우리가 - 새숲이 잘 운영하기만 하면 머지않아 그 공로가 인정되어 임대료 정도는 무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커지다보니 당연히 운영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2,000~2,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새숲을 지켜왔던 회원들에게 특별후원금을 요청하고, 지역의 다른 기관에 무이자로 빚을 지기도 하고, 사단법인의 기본자산을 털어서 운영비에 보태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텨왔더니, 2018년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에 마련이 힘들면 임대료 1,000만원을 4번에 나누어 내기로 구청과 협약하고 2018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긴급지원 119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 8월에 납부한 4분기 임대료는 마지막 회차분으로 이것을 통해 새숲이 적어도 다시 한해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하반기 동안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올 해, 정말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에 전기로 걱정안하고 에어컨을 틀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천한 것이지요. 방학 동안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피서를 즐기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새숲은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대료는 새숲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새숲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TFT”를 만들어 앞으로 새숲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실천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하고, 초창기 새숲회원들을 불러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열심히 국회의원, 구의원, 구청장을 찾아다니며 새숲의 어려움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계속 무상임대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관악구청, 관악구의회 등을



통해 새숲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이후의 고민

현재도 임대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0주년을 코앞에 두고 그냥 이대로 문을 닫을 수는 없기에 다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합니다. 새숲은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면서 공공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왔습니다. 새숲은 89년에 만들어졌고, 관악구만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이 2002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하나 없는 불모지에서 새숲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과 지식,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해 온 것입니다.

새숲은 새숲의 활동이 충분히 공공성과 공익성,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이 인정을 받아 시유건물이니만큼 임대료 정도는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으나, 행정은 새숲의 공공성(공익성)보다는 ‘새숲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풀리지 않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은 ‘형평성’의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하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시 힘내서 내년 30주년까지는 뭔가 속 시원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9 새숲도서관은

#30주년 준비위원회 #공익보다 형평성을 우선하는 행정

2019년은 새숲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새숲은 마을도서관으로서, 또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것은 2019년 새숲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기 위해 올해 만들어진 ‘새숲 지속가능 TFT’를 ‘새숲 30주년 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2018년 새숲 지속가능 TFT는 당면한 새숲의 재정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새숲의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현재 새숲의 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이후 새숲이 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토론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논의만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2019년은 30주년을 맞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새숲 지속가능 TFT를 재편하여 30주년 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30주년이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며,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자료 발간 등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닳친 임대료와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찾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새마을이 공익적인 활동임에 대해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공익보다 형평성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지난 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단지 새마을이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면 이제 제3의 길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정작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민간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따라서 자력화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을 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이 모든 노력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이 지난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주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주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작은도서관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힘입니다. 책과 사람이 만나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힘, 그 힘을 모으고, 강화하는 것이 마을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주민들의 힘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고, 더욱 연결되고 만나게 하고, 주민들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협치를 강조하는 만큼 민간과 협력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나?” 새마을은 도서관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 말하는데 서울시는 새마을이 ‘사립’이라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마을은 서울시가 다른 것은 못 도와줘도 임대료 1,000만 원만 안낼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처럼 도서관을 잘 운영해서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도 새마을이 난곡에서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 다섯콩작은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자산취득비

#공깃들을 갖고 놀듯이 #주민들의 쉼터 #독서문화공간

→ 책으로 삶의 즐거움을 복돋우며 다 함께 행복한 마을 도서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독서·문화공간.

책을 매개로 가족 간 소통과 이웃과의 만남이 즐거운 곳.



다섯콩작은도서관은 성암교회가 주민들과 힘을 모아 2010년에 개관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방과후교실, 카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함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부속건물 2층에 도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섯콩’은 ‘공깃돌’을 뜻하는 우리말로 아이들이 공깃돌을 가지고 놀듯이 도서관에 즐겁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적극적인 참여로 개관 초기부터 마을도서관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으로 현재 회원은 970여 명, 장서는 11,700여권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책 속에서 뒹굴며 생각이 쑥쑥 자라는 공간, 주민들을 위한 쉼터이자 독서문화공간, 작지만 크게 누리는 도서관으로 주민 가까이 있고자 합니다.

#비용절감 #손수제작

해가 갈수록 장서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자료 수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증자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층과 주제에 따른 원활한 접근과 이용, 보관을 위해 책장 추가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책장들이 벽면을 두르고 있어 전시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좁은 도서관 내부에서 이동하며 쓰기에 불편한 기존의 북트럭을 도서 전시대로 활용 중이었으며, 북트럭 없이 배가를 하다 보니 불필요한 동선이 많았습니다. 이에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소형 북트럭을 평소에 염두에 두었는데 이번 기회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폼포드와 색지로 대출 반납 일력표나 도서관이용안내문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으나 시간에 따른 파·훼손으로 인해 제작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안내문들을 견고한 안내문으로 교체하여 반복 제작을 줄이고 우선 업무에 집중하며 도서관 미관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책장의 남은 칸이나 낮은 서가의 상단에 도서를 전시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도서 거치대를 활용하여 디스플레이를 개선하여 자료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시도 중입니다.



이처럼 물품 구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책장을 구입하고 배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임시휴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당한 시기를 견주어 휴관 일정 정하기, 업체 두 곳과 진행하면서 양쪽 납품일을 맞추기 위한 반복적인 확인과 독촉, 일처리가 미숙한 한 업체와 진행하면서 증빙물 챙기기의 어려움 등 책장 제작 기간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찍 움직였기에 그나마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더 큰 도약 #숨고르기

책정리가 원활해지고, 여유로운 공간 확보로 안정적인 장서 수집, 효과적인 안내와 도서 게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4~5월에 3주에 걸친 도서관 주변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주요 진입 통로가 차단되면서 방문자가 급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일정으로 임시휴관이나 단축운영이 이뤄지고 8월 여름 휴가, 9월 추석 연휴, 10월 책장 배치 및 장서점검 작업으로 짧지 않은 휴관들이 이어지면서 이용의 공백이 생기니 이용자의 발걸음이 비교적 줄어든 상태입니다. 흐름을 다시 찾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하루빨리 더 많은 분들이 변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의 해였다 여기며 차후 이용행태에 따라 서가와 장서 배열을 보완하고 119사업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변화 #책 소개 활용

도서관의 변화를 반겨주시니 지난 고생이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고정된 책의 위치들이 바뀌면서 새롭게 눈에 띄는 책들이 많았는지 장서점검을 거치면서 전체 장서수는 줄었음에도 '새 책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장 도서를 잘 소개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절감하여 남은 119사업 예산을 세부계획 변경을 통해 거치대를 구입하면서 도서 게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쁜 이 순간

책장이 추가되면서 불가피하게 장서 재배치가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서점검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가나 장서의 위치를 계속 변경하며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기까지 모두 혼자 작업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책을 직접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일의 특성상 다른 분께 맡기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적합한 배치를 찾기까지 서가와 장서의 반복적인 이동을 부탁드리는 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기간 동안 '혼자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요.'를 수십 번 들은 듯합니다. 기존의 서가나 게시판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코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자마자 어딘가 모르게 바뀐 분위기 때문인지 '바닥공사 새로 하셨나 봐요'라고 말씀 주신 분이 기억납니다. '새 책이 많이 들어왔나봐요'와 함께 작은 변화가 이렇게나 큰 새로운 기분을 전할 수 있음에 놀랐습니다. 주변에서의 걱정과 돕고 싶은 마음을 응원 삼아 차근차근 끝내고 어느덧 글로 소회를 남기는 이 순간이 기쁩니다.



#2019 다섯콩작은도서관은

장서량과 회원 수는 점점 늘어 관리할 영역과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운영 인력 부족으로 세심한 관리, 운영이 어렵습니다. 상호대차와 같은 다른 도서관과 연계된 서비스, 반납예정일과 연체안내 문자 서비스, 다양한 도서 목록 제공, 모바일 회원증 제공 등 이용자의 요구도는 점점 올라가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공공도서관의 기본 서비스를 작은도서관에서도 받고 싶은 당연한 요구이나 그 기본을 따라가기도 벅찬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실비 보조금 지원 또는 공공근로(청년인턴사업, 근로장학생 등) 사서 보조 인력 지원을 희망하며 작은도서관 회원·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료 공동 활용, 대출증 공동관리의 기반이 마련되어 도서관의 접근성과 이용을 높여갔으면 합니다. 더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 달리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세상을 달리 보고 달리 느끼고 달리 생각하자 #책나눔 #책장

달리도서관은 이웃들의 정다운 사랑방, 제주여행자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교류와 인문학적 소통이 일어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이름인 “달리”는 세상을 달리 보고, 달리 느끼고, 달리 생각하자는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달리도서관의 책장은 개인이 감동스럽게 읽은 책 중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기증하는 ‘책나눔’으로 채워졌습니다. 20권 이상을 기증하면 달리도서관에 자신의 이름을 단 책장이 생깁니다. 책을 통해 ‘나눔과 관계 맺기’가 시작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간 만화책 #상근활동가 활동 안정 #기획과 작당



도서구입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오로지 만화책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책나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동안 신간 도서구입이 크지 않았습니다. 2018년 여러 방면으로 리뉴얼을 하던 중, 방 하나를 만화방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기증받은 만화책들을 기본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서 신간 위주의 만화책을 구비할 수 있어 고전과 신간이 함께 하는 나름의 멋진 만화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근활동가’의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되었습니다. 해서 여러 기획과 작당들이 예년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많은 도서관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원사업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화방 시작 #도서관의 단비

일단, 신간 위주의 책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상반기부

터 꾸미고 있던 “만화방”이 조금은 구색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인 구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지원사업이 아니었다면 그 시작을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인건비의 지원은 상근활동가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 크게는 도서관의 재정에도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만, 연속적일 수는 없다 보니 2019년은 다시 도서관 재정만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자 확대 #SNS 홍보

한동안 문화행사나 특별 강좌, 연속 강연 등에만 달리를 찾던 분들이 평시에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등, 작은 변화이기는 하나 이용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오는 일이 어찌면 가장 기본이고 가벼운 일이 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만화책들의 소식은 달리도서관 SNS 등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달리를 몰랐던 분들에게도 홍보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신간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책 구입 #뿌듯함

“와~~ 이 책을 여기서 보다니...”라고 해주셨던 이용자분의 말씀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만화책을 구입하기 전 달리지기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의 수고로움이 싹 사라지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2019 달리도서관은

#더디더라도 꾸준히 가자

사실 2019년의 큰 계획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해나가자.’의 틀 안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디더라도 꾸준히 나아가자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놓치지 않고, 종종 즐거운 작당을 꾸밀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인건비 마련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 도토리숲작은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설보수비

#예술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과 연계해 활발한 활동

저희 도토리숲 작은도서관은 2013년에 개관했고, 이제 작은도서관의 매력을 조금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토리숲 작은도서관은 오시는 분들이 카페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양한 예술적 안목을 가진 회원들이 있다 보니 점점 예쁘게 꾸며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초등학교와 마을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도서관 확장공사 #뜨거운 여름 땀방울로 다시 세워진 도서관

저희는 도서관 확장 공사를 했는데, 애초에 「긴급지원 119 사업」의 도움을 받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확장 공사계획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긴급지원 119 사업」에 대한 소개를 받고 지원하게 되었지요.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라 외부 용역을 주기에는 소요비용이 많이 들기에, 자체 인력을 이용해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안에 기술과 안목을 가진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한창 뜨거운 열기가 한창 일 때,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철거작업과 1차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철거하는 일에 힘을 보탤고, 좀 더 기술력이 필요한 전기와 바닥 이미지 작업 등은 마침 여름 봉사활동을 온 청년 봉사단들이 맡아 주었습니다.

목공 작업 등 좀 더 디테일한 일들은 회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너무 더운 날씨도 작업 하는데 난관으로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꺾일 무렵 9월 초가 넘어서야 2차 인테리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테이블과 책장 등 도서관 가구 제작을 하였고, 페인



팅 작업 등 늦은 시간까지 회원들이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지원 사업비로 재료를 구입하고 자체 인력으로 하는 일이라 힘이 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의 땀방울로 세워지는 도서관이라는 사실에 모두들 자랑스럽고 흐뭇한 감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활동 공간 #어른들을 위한 북카페 운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의 공간보다 두 배로 넓어진 공간이 생겼으니 모두가 도서관이 더 성장했다는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넓어진 공간만큼 우리의 기대와 꿈도 더 커졌지요. 새로운 공간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까? 행복한 고민들을 서로 나누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쏟아 내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어른들이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구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비 충당을 위해 작은 수익사업(북카페 운영)을 하기로 했고,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자유롭게 노는 동안 담소를 나누며 쉼을 얻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도 찾아오는 분들 모두 예전보다 도서관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점점 발전되는 도서관 모습에 축하해주는 주민들

「긴급지원 119 사업」이후 도서관이 확장되고 변화가 일어나자 제일 먼저 반겨주었던 분들이 주민들이었습니다. 오다가다 공사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확 달라진 도서관 풍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도서관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보기 좋다, 축하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서관 옆으로 이사 오는 주민들 #맹모삼천지교?

「긴급지원 119 사업」이후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중 잊지 못할 분은 세 아이들의 어머니인데요, 조금 예민한 성격을 가진 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우연



히 저희 도서관에 오셨다가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리고 큰 아이들이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아이에게도 물어보니 이곳이 좋다고 하여 초등학교를 저희 도서관 옆의 초등학교로 보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하여 아이들을 전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시골학교가 저희 도서관으로 인해 점점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학년 유지하기 어려웠던 학교가 2학급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 유치원도 두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도서관 때문에 학교가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하실 때, 도서관 봉사자 모두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9 도토리숲작은도서관은

올 2018년은 저희 도서관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받은 해였습니다. 물론 「긴급지원 119 사업」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2019년은 저희 도서관에게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인 만화카페 「그냥」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임대료 및 운영비, 인건비 충당을 위해 회원들이 북카페 운영과 「손공방 나눔터」 등 수익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간이 확장된 것만큼 운영비 지출 또한 늘어나면서 후원금만으로는 도서관 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 등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에 대한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또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도토리숲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도토리숲이 되었으면 좋겠고, 협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토리숲은 책과 사람으로 풍성한 2019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떡갈나무숲작은도서관

#경상남도 김해시 #자산취득비

#즐거운 책수다 #청소년이 진행하는 책이랑 색종이랑

자관은 김해시 율하 LH연구임대 아파트에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화단과 놀이터,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서수는 6,070권이며 김해시통합도서관에 속해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도 합니다. 독서동아리인 ‘즐거운 책 수다’는 매주 목요일 10시~12



시까지 토론회를 합니다. 토요일에는 율하고 동아리 학생들이 ‘책이랑 색종이랑’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책이랑 색종이랑’은 초1~3학년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다양한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 ‘작가초청’을 하며 2017년에는 김미혜 작가, 2018년에는 함민복 시인을 모시고 문학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책구입 #이용자 만족도 향상

해마다 좋은 책들이 출판되고 다양한 곳에서 필독서나 선정도서를 지정하는데, 자관의 형편으로는 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이 여러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좋은 자료를 선정하고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 198권을 수서하게 되어 독서동아리의 선정도서와 2019년 겨울방학 초등학생 독서수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를 수서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게 되었습니다.



#가뭇에 단비 #무한 긍정의 마음

올 해는 2018 긴급지원119 선정으로 책을 구입하게 되어 한 숨 돌렸습니다. 그동안 수서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도 애만 태웠는데 가뭇에 단비처럼 반갑고 고마운 사업이었습니다. ‘다정도 병’이라는 옛 시인의 말처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된다고 작은도서관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



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라는 무한긍정의 마음을 가져 봅니다.

#마을의 사랑방

작은도서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이 책과 사람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합니다.

#원서 구입 #고마워하는 이용자

이용자 구입희망도서를 신청 받을 때 한 분이 계속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원서 중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능한지요. 우선 적어놓고 수서위원과 운영위원에게 논의하니 구입하자고 하였습니다. 수서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니, 그 이용자분이 매우 고마워하며,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이용자에게도 대출하라고 권하더군요.

#2019 떡갈나무숲작은도서관은

지난 11월에 운영위원회의 할 때 2019년의 포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인 및 고등학생 자원활동가 모집, 개관기념행사, 책 관련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9년에 새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월 1회라도 중, 고등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관련 수업을 하는 것 입니다.

지자체나 협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늘 그렇듯이 작은도서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지원이 당장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책이 주는 감동과 치유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작은도서관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협회 등)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2. 또바기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과금 #임차료



#공동보육 #주민교류의 장

또바기어린이도서관은 대전 와동지구에 위치하여 마을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도서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보육과 주민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 난방비 모금 #쉽

매년 임대료, 난방비 모금을 위해 일일차집이나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긴급지원 119 덕분에 봉사자들이 한 템포 쉬었다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같습니다. 덕분에 도서관 서가정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집중 #서가 정리

임대료 해결로 금전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도서관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었고 도서관 서가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낙후된 공간 #도서관 홍보

도서관이 깨끗이 정리되어서 책보기가 예전보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낙후된 공간이나 샷시, 에어컨 등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관홍보를 통해 이용객이 많아지는 방법도 토론하였습니다. 밀린 관리비 해결, 임대료 확보라는 점에서는 모든 봉사자 분들이 박수를 쳐 주셨지만 낙후된 시설보수를 원하는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일단 일의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은

2018년 금전적 안정을 취하고 서가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2019년은 도서관 외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간판을 보충하여 도서관 홍보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13.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시설보수비 #자산취득비



#놀토마을학교 열다 #나눔과 돌봄의 마을공동체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서구 비산동에 사는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2009년 7월에 문을 열어 주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처음 도서관 만들기

는 몇몇 뜻있는 동네 엄마들이 모여 놀토마을학교를 열어 동네 아이들을 이웃들의 힘으로 돌보는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동네놀이터를 찾아다니면서 도서관 만들기를 홍보하고, 돼지저금통을 분양하고, 일일차집과 후원주점을 열어 이천여만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 개인을 찾아가며 도서 기증을 당부하였고, 서울에 있는 도서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부탁하는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공간을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닦고 하는 일은 모두 엄마들이 직접 하였습니다.

2014년 도서관 건물주가 바뀌어 공간을 이전 확장하면서 필요한 공사비도 주민들이 보태준 후원금과 출자금을 모아 해결하고, 도서관 공간 보증금 5,000만원은 후원회 행사를 열어 모았습니다.

현재도 동네 주민들의 사서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와 후원인들이 내는 후원회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돌봄의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며 교육·문화활동으로 즐토마을학교, 책놀이, 도서관 1박 2일, 주민강좌, 이야기극장, 문화공연, 마을축제, 동네벼룩시장을 개최하고, 2016년에는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산동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십년 동안 햇빛따라는 비산동에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돌봄의 책놀이터로,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문화공간으로, 이웃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나누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냉장고 #주방 #마을밥상

도서관이 문을 열고 5년이 되던 해에 건물주가 바뀌어 2014년에 지금 자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서관 이전공사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바라던 주방, 다락방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재정이 부족해서 주방에 싱크대만 설치하고 수납장 설치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냉장고도 오래된 중고 냉장고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던 주방이 생겨 참 좋았는데 해를 넘길수록 짐은 쌓이고 수납공간은 부족하고, 보존서가 없어 책을 보관할 곳도 없어 주방은 점차 창고로 변해 갔습니다. 좁고 조리대도 없는 주방에서 요리교실, 마을밥상을 진행하기에는 참 불편했지요.

매마침 긴급지원 119사업에 선정되어 도서관 회원들은 '궁하면 통한다'는 속담을 들먹이며 모두들 자신의 일인 것처럼 신이 났습니다. 모자란 공사비를 아끼려고 8월에 '대프리카' 대구에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무더위에 힘이 들었지만 편리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함께 밥한끼 나누는 즐거움에 도서관 활동가, 이용자들이 시간을 내어 짐정리, 청소, 주방 정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고냉장고를 10만원 주고 구입해서 몇 년째 쓰고 있었지만 새것으로 교체하기에는 다른 급한 곳에 지출이 우선이었지요. 이번에 119 지원 덕분에 처음으로 새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앤남남, 어린이 요리수업, 마을밥상을 진행하기에 한결 수월해지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보관할 수 있어 무엇보다 안심입니다.

#물품보관 용이 #주방 구경

작은도서관의 면적이 넓지 않아 항상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보존도서 보관과 늘어나는 물품으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번 긴급지원119 사업으로 물품보관이 용이해져 도서, 물건을 찾는데 수월해졌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들이 주방에 먼저 들러 구경하고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하겠다는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생활공동체 공간

햇빛따라는 동네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조리대가 생겨 편리해진 주방에서 식사 한끼를 나누는 생활공동체 공간이되기도 하구요. 수납장이 생겨서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찾기가 편리해져 자원활동가들

이 일일이 찾아주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좋습니다.

#일손 보태기

주방에 있던 냉장고와 잡다한 짐을 털어내고 공간배치를 새로 하다보니 도서관 대청소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전자렌지, 오븐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전기공사도 필요했습니다. 지원금으로는 쓸 수 없는 인력과 돈이 드는 일이었지요. 이럴 때 짠~하고 도서관 회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몇 사람이 짐을 들어내고, 어떤 이는 청소하고, 전기공사 업을 하는 회원은 퇴근하고 와서 전기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다들 일손을 보태주니 자꾸 큰일을 벌인다고 구박 아닌 구박도 받았지요. ㅎㅎ

#2019 마을도서관햇빛따라는

내년이 도서관이 문을 연지 10년입니다. 도서관 10주년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동네잔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 민들레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공과금 #임차료



#마을의 작은 사랑방 #민들레의 꿈

민들레 작은도서관은 2015년 4월 개관한 개인이 운영하는 정말 작은도서관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1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는 성남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아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작은 사랑방이 되는 것이 민들레의 꿈입니다.

오늘도 누구나 편하게 들러 쉬었다 갈 수 있는 숲 속 작은 옹달샘 같은 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

임대료와 공과금을 지원 받아서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특성상 임대료내야 하는 상황이고,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활동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해 후원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임대료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상황에 긴급지원119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운영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에어컨 바람 속에 다른 여름보다 길었던(주변학교 내진 공사로 여름방학이 1달이 넘었습니다.) 여름 방학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꿈꾸는 사랑방

안정된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119 지원으로 아직 몇 달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꿈꾸는 사랑방, 숲 속 옹달샘 같은 공간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용자들의 요구

이용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원하고 토요일에도 개관을 하기 원하지요. 가능하면 이용자들의 바람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 민들레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형편이 다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 줄 거면 해당 도서관에서 운영비에 더 쓰던지, 프로그램에 더 쓸 것 인지 어느 정도는 선택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이 공적이 활동을 하는 공간인 만큼 상근자의 인건비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 작은도서관의 모습이 2018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실무자 선생님들 2018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에도 작은도서관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시겠죠.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5. 선비마을4단지아파트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선비마을4단지아파트작은도서관_매력

아동도서와 일반 문학소설 등의 도서 비중이 높아 부모와 자녀의 방문 및 이용이 많은 편이고 부모와 유아 자녀가 함께 사용 가능한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입니다.

#컴퓨터 #공기청정기

봉사자들이 컴퓨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제반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선택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 방문을 통해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알아보고 또한 가격을 조율하였습니다.



#쾌적한도서관

노후된 컴퓨터 한 대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집중되었을 때 대출 반납이 지연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지체되었는데 최신 컴퓨터의 구비로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기청정기 구매로 미세먼지의 영향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불편함이 많은 요즘,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하기보다는 쾌적한 도서관으로 보내 주어 도서관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처리시간_단축

오래된 책의 특유의 냄새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아 책을 읽을 때 편해지고,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낼 때 더 안심하고



보내신다고 합니다.
 컴퓨터구입으로 대출, 반납 등의 업무처리가 빨라져 대기시간이 줄어서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도 살림을 새로 들여 놓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이용하는 주민들도 도서관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 집에도 없는 공기청정기도 있다고 집보다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2019선비마을4단지작은도서관은

→ 저희 도서관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실속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서를 잘 관리하고, 이용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살피서 보완하고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매 월 구입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16. 소꿉놀이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과금 #임차료

#소꿉놀이작은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소꿉놀이작은도서관은 저소득층의 육아 등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양극화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진보연대에서 2011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장난감도서관으로 개관하였고 2012년 3월 2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여점의 장난감과 9,0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이용층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과 엄마들입니다. 초등학생과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5.18 마을행사 또는 역사기행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기타 마을공동체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술세밀화강좌 #책맥

특별히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추진한건 없지만 다른 기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세밀화)강좌를 4개월간 진행하였고, 사업기간에 '책맥'이라는 동아리가 하나 더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해소

운영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로 해결하다보니 도서관 운영 중 가장 큰 애로가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관리비등 연체가 많이 있었는데 긴급지원119사업을 만나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개관한지 만 7년을 넘다보니 시설과 기자재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 또는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상근자필요성

상근 사무국장이 있다가 현재는 없고 비상근인 관장과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하고 계십니다.

#소중한공간 #없어질까_걱정

모 방송사에서 도서관에 취재 와서 도서관 이용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주민께서 인터뷰 때 "지역주민들한테 소중한 공간인데 도서관이 재정적으로 어려운걸 아니까 혹시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던 게 생각납니다. 관장으로서 이용하는 주민들께 걱정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9소꿉놀이작은도서관은

아직 2019년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들을 보수하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과 도서구입비 지원 외에 공과금 등의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 순무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순무작은도서관_매력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 씨앗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 우리들의 놀이터“
순무도서관이 지향하는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숲속에 계를 짓고, 아이들과 자연놀이터를 만들어갑니다.
산도 있고, 졸졸졸 시냇물도 있고, 꼬꼬도 있고, 밭도 있고,
유치원은 빠져도, 도서관엔 출석률 100%

#추위와해충 #구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큰 어려움은 주변의 해충이나 추위로부터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물품들을 취득함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5개월의 인건비 지원은 도서관과 도서관의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무료봉사로만 치부되었던 도서관봉사자에 대한 위신이 생기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등에 흐르는 땀줄기가 여러 가닥이 생기죠. 잠시나마 잘 쉬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원을 통해 도서관을 더 열심히 지켜나가야겠다는 각오가 생기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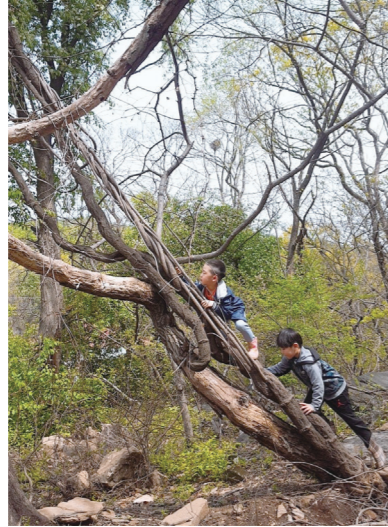
#재미있는도서관

마을 끝자락,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펼쳐진 재미있는 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을 위해 편안한 쉼터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자부심 #당당함 무엇보다 인건비지원은 봉사자들에게겐 봉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당당함. 도서관을 위해 다시 내어주는 봉사자의 마음. 봉사의 근본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2019순무작은도서관은→ 119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을 꾸려가다 보면, 더 열심히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늘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숲속에 도서관을 짓고 보니, 유지보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새해에도 도서관 선생님들과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도서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아이숲어린이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임차료 #자산취득비



#아이숲어린이도서관_매력 #건강한어린이문화 #꽃 피는공간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2007년 광주시민센터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든 광주 최초의 민간어린이도서관입니다. 아파트 단지 속, 롯데슈퍼라는 쇼핑센터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장보러 왔다가, 학원에 갔다가 잠시 쉬어가고 놀다 가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놀러와서 떠들다가 심심하면 책을 보는 도서관입니다. 등을 기대고 앉았다가 누워서도 책을 보고 가는 편안한 도서관입니다. 책이 아이들의 교육이 아닌 친구가 되는 도서관을 꿈꿉니다.

겨레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키워나가길 희망합니다. 건강한 어린이 문화가 꽃피는 공간,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나눔 공간을 지향합니다.



#냉난방기 #추위걱정끝

아이숲어린이도서관 문을 연지 11년째입니다. 냉난방기를 도서관 설립 당시 중고로 구입하여 현재 사용이 11년 이상이 되어 매우 노화 되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면 자꾸 꺼졌습니다. 겨울 난방할 때는 기름 냄새가 나고 난방기를 켜도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파에는 자원봉사자 및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매우 추워 도서관 방문을 꺼렸습니다.

새로 구입한 냉난방기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냉난방기가 놓인 자리는 상근자 책상 바로 뒷자리로 상근시에 냉난방기 소음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는데 소음이 사라져 상근자가 매우 좋아합니다.

겨울 난방시 빨리 실내온도가 올라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이 따뜻해 도서관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세도 매우 절약되리라 기대됩니다. 겨울 동안 매우 추울 때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겨울에도 모임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운영비가 줄어드니까요. 올해는 지원받은 임대료로 2018년은 걱정 없이 운영되었구요, 2019년도 좋은 영향을 줄 것 입니다. 또한 냉난방기 교체로 환경이 쾌적해져서 후원회원이 늘어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겨울나기_따뜻해 #전기세절약

도서관 회원들이 새로 바뀐 냉난방기를 보고 묻습니다. “새로 샀어요?” “아니요,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에서 지원해줬어요” “와~ 이렇게 좋은 걸요?” 회원들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주고 도움을 주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은 여름 더위보다 겨울 추위가 더 힘들었는데 냉난방기 하나만 바뀌어도 겨울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실내온도는 빨리 따뜻해지고 기름 냄새는 나지 않고 소음도 없어지니 실내가 쾌적합니다. 도서관 이용과 근무하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회원들이 도서관에 모이면 따뜻해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전기세도 많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12월 요금도 줄었구요, 1월에는 더 많이 줄어 들 걸로 기대됩니다.



#도서관운영안정 #쾌적한환경 #이용자들이

공과금을 지원받아 도서관 운영이 안정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난방에 따른 전기세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겨울 임대료 공과금이 부족해 운영위원들이 특별 회비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탈퇴할

#마을의사랑방

우선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운영자의 얼굴이 매우 밝아졌으니까요 ^^) 항상 문이 열려있고 신간 도서가 정기적으로 꽂히고 노후된 기기를 바꾸었기 때문이지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아이숲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고자 합니다. 저녁에도 마을의 다양한 단체에 공간을 개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는데 실외기와의 거리가 매우 길어서 설치비만 80만원 정도에 육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설치를 못하였고 이 문제는 건물주인 롯데슈퍼와 이야기 하여 기존 실외기 자리가 아닌 윗층으로 올려 실외기와의 거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도 20만원 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

#특별회비

냉난방기를 사면서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 예상보다 금액이 비쌌습니다. 18평을 설치하려 견적을 받았는데 설치하러 오신 기사분이 평수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수를 올려야만 냉난방이 잘되고 전기세도 적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특별 회비를 마련하여 부족분을 충당



#2019아이숲어린이작은도서관은

2019년은 마을운동과 더 많은 결합을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유치원 전면 확대로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서관은 마을활동과 결합하여 노인 및 어린이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긴급지원 119 사업은 지원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처럼 강사비나 책 구입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면 지원사업에 응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자체 지원은 도서관활동가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기만 하여 오히려 도서관에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긴급지원 119의 임대료, 인건비, 물품구입비는 고마운 선물 같고 그동안 도서관 운영하느라 고생했다는 격려 같았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금도 이처럼 다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 놀자

#서울시 광진구 #임차료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 놀자_매력
#마을공동체거점공간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 놀자는 동네주민들의 작은 소망에서 시작됐다. 2012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모임인 '광진구 마을넷'에서 개별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넷에서 공동으

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했고, 온 주민이 책으로 소통하면서도 마을사랑방 구실을 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2014년 탄생시킨 곳이 도서관이다.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는 마을 도서관으로 형성되어 책과 배움이 있는 공공 도서관으로의 역할 뿐 아니라, 아이들과 어른들이 놀자를 중심으로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플랫폼이자 다양한 마을의 주민들을 마을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속적운영

놀자 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 확보, 동네주민들로부터 도서관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놀자에 와서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현하는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철학을 전달하는 것 등 놀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일은, 놀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운영은 곧 재정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운영 상 재정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임차료를 4개월이나 지원받은 것은 결코 작지 않은 힘이 되었다. 다달이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건물주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갔다. 남은 돈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일 자체가 즐거웠다.

#공간과사람 #작은발판

지원금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생각보다 많았다. 도서관 문화를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놀자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했고, 놀자와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놀자 도서관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교육하게 했다.



다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다.

#함께할공간 #아이들 #할머니

어느 한 순간을 꼽는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2018년 한 해 동안 감동적인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아이에게 책을 보여주러 놀자 도서관을 찾았던 사람들이 자원활동가가 되어 어디서든 얻기 힘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함께 할 공간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었다. 어딘가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면서도 무얼 해줄지 몰라 망설였지만 하루하루 낮을 익히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마을 도서관의 몫이라는 걸 깨우쳐준 게 바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올해 78살이신 한 할머니 이용자의 방문이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며 인생을 살아오셨던 할머니는 우연히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림그리기를 시작하셨다. 도서관을 처음 오셨던 날, 그림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림책에 있는 동물 그림을 진지하게 보시며 똑같이 그려내셨던 할머니. 본인에게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리기에 대한 재능. 도서관의 아이들이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리세요! 화가 같아요."라는 칭찬에 "할머니는 잘 할 줄 몰라.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라고 대답하셨다. 아이들 중의 한 명이



“할머니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는 거 보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다.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나이나 성별을 떠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그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 사랑을 주고 주는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사람은 평생동안 성장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 날 생각했다. 그런 순간을 도서관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순간이었다.



#2019놀자 #시민자산화모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가시적인 계획이 더욱 필요해지면서 비영리 단체 등록이나 법인격 획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후원 회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할 계획이다. 또한 광진구에는 아직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2019년에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

유하려고 한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놀자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과 건물을 공공으로 소유하는 시민자산화모임에 참여하려고 한다.

20.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경상남도 울산시 #인건비성경비 #공과금



#양정작은도서관달팽이 #지역사회함께운영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는 2010년 개관했습니다. 정년퇴임한 공무원 봉사단부터, 책임어주는 청소년 봉사단, 토요일 도서관을 책임지는 가족봉사단, 서가 봉사팀등...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2017년 10월, 생후 2개월이 채 안 된 아기 길냥이, 2018년 6월 생후 1개월 된 아기 길냥이가 지금은 도서관 식구가 되어 동네아이들을 맞아줍니다.

#단비 #도서관에집중

인건비와 공과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릴 때 단비처럼 만난 지원이라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몇 개월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인지... 덕분에 덜 허덕이며, 어쩌면 약간의 여유를 부리며 도서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책임어주는청소년봉사단 #에어컨가동



지원금이 나오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원금이 나와 아르바이트 자리 찾던 걸 그만두고 '책임어주는 청소년 봉사단'을 기획하고, 교육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더웠던 여름.. 도서관 개관이후 처음으로 걱정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에어컨 가동을 했습니다.

#이용자만족도_높음



관장이 도서관 일을 총괄하고 집중하니 도서관이 안정되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에 대한 청소년의 봉사만족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생님! 책 읽어주는 거 좀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청소년 봉사자의 말입니다.

#2019양정작은도서관달팽이는

작은도서관도 틀림없는 공공도서관인데... 공공의 기능,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 키는 것도 걱정해야 하고... 도서관 일도 하고자 덤비면 산터미인데 민생고 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해매는 것은 너무 슬프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공론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이 하나의 도서관 시스템이 되도록, 같은 도서관이 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튼튼히 자리 잡도록 모두 힘써시다.

21. 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

#서울시 중구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서울도심속쉼터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은 책을 만난 이웃이 책을 즐긴 이야기를 대보름날 함께 나누고, 나물 한 가지씩 불러 와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금방 볶아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웃놀이도 함께 즐기는 서울 도심속에 마을을 경험하는 도서관. 일하느라 아이만 도서관에 보냈다가 퇴직한 뒤에는 동네 큰언니들과 동생들의 다리 역할을 하며 도서관을 이어주는 느티나무 언니들이 있는 도서관에서 책이야기 나누며 육아와 입시의 피로를 잠시나마 풀 수 있는 쉼터.

#믿음 #보상

대부분 사업비를 인건비로 지원받은 경우가 20여년 도서관 운영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긴급하고 어려운 때라 지원을 받은 우리는 매우 고마운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우리를 믿고 지원해 준 것이 기쁘고 무언가 보상을 받는 느낌 같은 것이 있었다. 꿀맛!

5개월 동안 누군가 우리를 믿고 지원해 준다는 느낌을 운영자 뿐 아니라 운영위원들이 함께 느낀 안정감은 금전 얼마로 표현할 수 없는 보상이었다. 그 기간이 단지 5개월이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내년을 시작한다. 이런 느낌은 이런 지원을 받아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다른 도서관에게도 이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활성화

사서와 관장 2인 상근 형태의 도서관인데, 재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사서 공석인 상태에서 신입 사서를 채용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긴급지원 자금으로 사서를 채용하여 관장에게는 활동비를, 사서에게는 상근활동비를 지급하여 보다 주어진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고, 빠른 속도로 안정화 되었다.

4개월 동안 공석이던 사서 자리에 나도훤훤어린이책읽는모임 7기 회원 출신인 사서가 채용되었고, 올해의 목표였던 상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었다. 작은도서관은 활동 홍보를 위해 시간을 따로 쓸 수 없고, 오가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주요 홍보 방법이 될 때가 많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도서관에 오는 발걸음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 평소에는 월 2회 요리북조리북 프로그램 실시, 여름에는 매주 요리북조리북, 아이스영화카페, 어린이바느질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네 어르신과 육아맘이 만나 그림책을 읽고 바느질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야기바느질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이 어린이절 기행사(추석) 등에 자원활동으로 참여가 늘어났고, 이야기바느질 참가자 중에 바느질 재능기부를 하는 자원활동팀이 생겨났다.

#신통방통한지원금

“급하다고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은도서관 형편을 다 아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니 그거 참 신통방통하네요!” 하며 회원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참 많이 고마워했다.
“그런 지원금이 있어요? 지자체도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원과 후원회원들은 그 좋은 일을 왜 정부나 지자체는 하지 못하나며 아쉬워했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작은도서관을 꺾지 못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더 느끼기도 했다.



#119지원 #디딤돌

연말이 되면 늘 새해에 대한 소망보다는 걱정이 앞선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런데 요즘 회원들의 인사가 달라졌다. “내년은 사서샘이 있으니 출발부터 아주 든든하네요.” 올 해 사서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은 단지 몇 달 이었는데, 빈자리가 아주 크다는 것을 경험한 탓이다.

며칠 전에는 이야기바느질 수업에 참여했던 어르신이 작은 선물과 편지를 가져오셨다. 올해는 잊지 못할 해였다. 동생들과 바느질을 하고, 어린이 그림책도 읽고, 아이들과 송편 빚기도 한 것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울컥 눈물이 나왔다. 그 누구의 위로보다 더 따뜻해서였을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여서 그랬을까?

119, 그야말로 긴급지원이 있었던 덕분에 공백이 길지 않았고, 느티나무도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긴급지원을 기반으로 일상 사업은 물론이고, 매년 큰 운영비를 마련하는 바자회도 열 수 있었다. 열 때마다 올해가 마지막이지 다음 해에 또 손님이 와줄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지자체와 정부 지원이 없으니 회원들이 후원회비도 내고, 바자회도 열어 인건비와 자료구입, 프로그램비까지 마련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꾼도 있고, 운영비도 일부 마련했으니 내년을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뜨겁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2019년계획

- : 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을 선정하고, 읽은 책을 공유하는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
- 1. 주제 책 전시 때 이용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한 줄 책갈피.
- 2. 동아리에서 읽은 책을 소개하기
- 3. 어린이 “즐거움 책읽기”와 “프로그램”의 책 소개 전시
- 4. 책을 소개하고 책을 매개로 생겨난 이야기를 잡지로 만들기
- 5. 책축제, 마을축제, 녹색장터에서 책 프로그램 진행하기

#지자체에요청

- 1. 구 단위의 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마을마다 작은 책축제를 진행하면 좋겠다.
- 2. 일상 속에서 공원이거나 도서관 혹은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책 읽어주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다.
- 3. 인건비와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22. 여우네도서관

#충청남도 서천군 #인건비성경비

#여우네도서관_매력 #농촌의특색

마을 주민이 운영위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부모들의 자원활동과 이용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식생활과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_인건비지원 #또꿈꾸게해

긴급지원119사업을 받음으로써 인건비라는 걸 받아보았고 생활의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인건비지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수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멋진곳 #편안한곳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간은 작지만 서가에 꽂힌 책들을 둘러보며 멋진 곳 편만한 느낌이 든다고들 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음에 항상 고맙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바람들도 말씀드립니다.

#자리물려주마

도서관에 오는 단체, 개인,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을 갖고 오는 어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림책도 읽어주고 책이야기 나누고 하는 일상 자체가 에너지가 됩니다. 도서관보다 어린친구들이 “어른이 되고서도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럼 지킴이들이 늙지 않고 기다려 너희들이 오면 자리를 물려주마.” 하면 웃습니다.



#2019여우네도서관은

2019년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함께 해오던 활동들(독서모임을 통한 함께 읽기, 지역의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등)이 지역 안에서 더 확산되고 자리잡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소수가 누리던 공간이 다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소극적인 자료의 제공을 넘어서 지적연대를 고민하고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보고자 한다.

23. 와글와글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설보수비



#와글와글작은도서관매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백이전통시장 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관한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그림책 『돌맹이국』처럼 주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사랑방 같은 매개자이기를 기대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과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어른들은 마을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쾌적한환경

새로 들어온 냉난방기 덕에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걱정을 덜고 쾌적한 환경에서 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래된 에어컨은 소리가 크고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2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연탄난로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화상을 입지나않을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 다. 겨울에는 연료비를 아끼려고 연탄난로를 썼는데 불이라도 꺼지면 번개탄으로 불씨를 살리기 까지 오전 내내 시간을 보내야했고 연탄가스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요금

도서관 근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수업을 하러왔습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더운 여름에도 전기요금



때문에 마음 놓고 냉방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도서관을 드나드는 주민 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연탄난로 #냉온풍기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 연탄난로 설치 안했어요?” “저희 냉온풍기 새로 놔서 연탄 안 때요.” 오가는 인사입니다. 생각해보니 지역에 몇몇 단체들과 마을교육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운 공간에서 모임이 어려워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따져 보지 않고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좋습니다.

#학교와연계 #경험

올해는 도서관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학교와 연계하여 초등1, 2학년 독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수업이 끝나고 수업에 참여했던 어린이가 엄마를 모시고 저희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도서관이 있는 줄 몰랐어요.”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가 참 대견하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빛나는 노동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책모임, 시모임, 그림자극, 아이들과 함께한 방학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실비지원을 못하는 미안한 마음과 스스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은 도서관의 꽃이라는 생각을 다시 곱씹게 됩니다.

#자원활동가 #활동비

작은도서관은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원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주민과 독서운동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누는 자원활동가들에게 적은 금액의 활동비 또는 교통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24. 우제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차료

#우제작은도서관_매력 #다문화가정

광주 하남공단 인근지역 다문화 밀집지역으로 사실 우리도서관에서는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모들과도 친밀감 형성 고취하고 있습니다.

#가뭇에단비

사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뭇에 단비 같은 행운을 준 귀 협회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대표를 비롯해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임대료만큼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중지를 모은바 있으며 워낙 경제가 안 좋은 탓도 있습니다.

#책임기봉사단 #강사공모선정 #겹경사

공모에 행운이 겹쳐 우리도서관에서도 책임기 봉사단 공모와 예술 강사(동시낭송)공모에도 선정 되어 2018년에는 겹경사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올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보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신뢰감형성

가까운 지역에 도서관이 있다는 말씀과 고마워하시면서 연신 인사를 교환하면서 서로 소통으로 친밀감 형성하면서 개인일 보려 갈 때는 도서관에 아동을 맡기면서 일 보시고 오시면서 데리고 가실 정도로 신뢰감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홍보

관장님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홍보에 역할이 대단하시어 오카리나 프로그램도 진행한바 있습니다.

#2019우제작은도서관은

2019년 우리도서관에서는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경로당 어르신들 사랑방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외부교육 요청 시 꼭 이수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귀 센터에서 공모가 있을시 문자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 인천여성회 동구지회부설 골목도서관

#인천광역시시 동구 #임차료



#인천여성회부설

골목도서관은 시민단체인 인천여성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 부설기관입니다. 인천여성회는 “배움과 소통의 성평등 공동체로 일터에서 삶터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명선언서를 바탕으로 구별로 5개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교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여성들이 인천에 여성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며 성평등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목도서관은 2011년 1월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의 발족과 더불어 마을의 작은도서관 만들기에 뜻을 함께 하는 회원들과 그 해 8월 송현시장 안에 10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운영을 시작하였고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공간에 1년여 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2년 6월 8일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며 그 공간에서 나와야 했고 시장 앞 건물 3층으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과사람 #사람과사람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는 배움과 소통의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도서관이고 초기에 송현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을 오가는 마을 사람들과 시장 상인들이 언제나 책을 읽으며 삶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으며 전통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송현시장 책수레, 시장탐험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이전하고도 책수레는 2년여를 계속 운영하였고 마을신문 제작, 독서동아리 운영, 한 책 읽기 ‘책 읽는 동구사람들’, 학교도서관과 마을을 잇는 ‘마을도통(圖通)’ 등 동구의 마을공동체 활동과 독서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책을 읽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와 함께한 2018년..

#임대료부담 #119지원 #단비 #책잔치

골목도서관을 개관하고 3년 동안은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받아 임대료의 부담 없이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적지만 상근활동가들의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도서관을 지금의 공간으로 이전한 후부터는 임대료를 마련해야 하기에 활동비 지급이 어려워져 상근활동가를 자원활동가로 대체하여 운영하였고 도서관을 책임지는 상근체계가 흔들리며 운영에 틈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골목도서관 2018년 목표 중 하나는 활동비 마련이었고 3월부터 소액이지만 활동비를 지출하다보니 도서관 재정에 구멍이 생기기 일보 직전에 긴급지원 119 사업으로 임대료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받는 5개월 동안 운영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도서관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었습니다. 일상이 안정되니 지역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마을에서 책축제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그림책 공부에 집중하며 올해는 성평등그림책에 대한 공부도 하였습니다.



#도서관안정 #일상의소중함 #새로만난이용자들

→ 사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어도 도서관의 일상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담과 활동비 마련에 대한 걱정은 언제나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도서관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급지원 119 사업을 만나기 전과 후가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키는 활동가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운영비 걱정 없이 도서관에서 일상을 살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부자가 된 느낌이었으니까요. 2018년은 무엇보다 도서관 활동이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뿌듯한 것은 영유아 책놀이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3층이다 보니 영유아와 부모들이 오기가 쉽지 않아 영유아 책놀이를 지난 3년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용자의 요청으로 시도하였고 도서관에서 아기를 만나는 행복도 누렸습니다.

이용자와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상근활동가들이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고 상근활동이 안정되니 이용자와 주민들의 도서관 방문과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무엇보다 무상임대가 가능한 공간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안정되고 언제나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아무 때나 편하게 찾아오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것입니다.

#도서관업무 #도서관사람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 좋겠다고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 도서관에 가면 청소하고 정리하고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회의가 있을 때도 많지요. 사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 도서관 활동가의 현실입니다.

지원사업을 받아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와 매 시간마다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까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하나가 아니며 여기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와 일상 활동, 동아리 운영 등 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어느새 이 일을 왜 하는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이 도서관을 찾아와도 어느 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맛있는 잔소리 그림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홍보기간을 놓쳐 참여자 모집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주 찾아오는 이용자가 걱정 말라며 그 자리에서 지인들에게 전화로 걸어 좋은 교육 있다고 함께 듣자고 참여자를 모집해 주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안이 되며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골목도서관은... #재정자립

2019년에는 지역의 학부모들의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이은 마을도통 사업으로 독서동아리를 구성하고 운영되는 학부모독서동아리에 운영과 도서, 토론방식 등을 지원하고 도서관과 연계하려 합니다. 동아리가 구성되는 것도 어렵지만 구성 후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도서관 활동을 통해 알고 있기에 함께 하려 합니다. 인천 동구는 인구 7만이 안 되는 작은 지역이지만 작기에 책을 매개로 모이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2019년 중점과제 중 하나는 성평등 그림책 공부와 읽어주기 활동입니다. 인천여성회의 부설기관으로 성평등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도서관을 찾아오는 아이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이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그림책을 읽으며 성평등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

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후원회원과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후원금으로 후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서관 일상의 안정을 위해 공간을 지키는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고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서관 모임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도서관을 후원하는 것임을 공유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으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가능하기에 이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재정 자립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과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재정안정화를 이뤘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6. 사람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차료



#사람작은도서관_매력

강화군 양도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책이 있는 쉼터로, 따뜻한 공간에서 마을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고 지키고 함께 누리는 마을 사랑방입니다. 사람, 선한방향, 성장, 책, 문화, 꿈, 나눔, 어울어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논, 밭, 바다, 갯벌을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멍때리기 좋은 도서관, 똥굴똥굴 똥구르며 책과 함께 놀기 좋은 도서관이지요~

● 이런 걸 할 수 있다네요~

- 바다, 산, 논, 밭 자연풍경 즐기며 '멍' 때리기
- 함께 즐기고픈 행사 기획 및 대관가능(생일잔치, 돌잔치, 회갑잔치, 책잔치)
- 책읽어주기, 책놀이터진행(어린이집, 유치원 견학프로그램 운영-예약필수)
- 도서관탐방 및 견학, 도서관 나들이(인근 지역내 도서관명소 포함)진행
- 책전시, 문화프로그램운영, 도서관영화제,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특강진행
- 도서관 대관가능(숙박포함)

#공과금지원 #시원한도서관 #똥굴똥굴책보기

공과금 지원: 시골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힘들 때를 꼽으라면 여름과 겨울이 아닐까 해요. 특히 폭폭~씨는 여름에는 책은 커녕... 움직이는 것조차 짜증스럽지요. 이번 119공과금 지원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어요. 시원한 도서관에 사람들로 넘쳐 났다지요. 편안한 자세로 똥굴똥 굴 책을 보는 이용자와 대출자가 급격히(?) 증가했지요*^^* 시원한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특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름방학특선영화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공과금지원은 도서관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에 큰 힘이 되었지요,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지원 #여유 #다양한프로그램

사람도서관도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도서관입니다.

이번 인건비지원을 통해 도서관운영이 한 층 여유가 생겼고요,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문화시설 전무한 상황에서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이용자들의 문화욕구를 해소, 충족시켰으며 함께 즐기고 만들어 가는 도서관을 통해 마을이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갈증해소 #재정마련

오아시스를 만나 갈증을 해소한 느낌이에요. 당장 시급했던 기본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으나, 앞으로의 재정마련이 또 다시 숙제로 돌아오는 시기이긴 합니다.

지역의 민간사립도서관들의 고질적인 재정마련이 단순히 개별도서관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보다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들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네요.

#마을과함께 #성장한도서관

인근 지역에 대형단설유치원 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어떠한 문화시설, 편의시설 하나 없는 상황에서 사람도서관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 가끔은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마을과 함께 성장한 도서관이기에 마을 속에서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합니다.

#사람 #존재의이유

가끔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어느 책에서 '존재의 이유'를 물을 때는 존재보다는 부재시가 어떤지 던져 보라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한 것 같아? 뭐가 좋았어?' '이것 보다는' 없으면 어떨 것 같아? '라던지요...

그래서...도서관에 남아 있던 산만한 무덤덤한 귀여운 우리 5학년 찬우에게 물어 보았지요.

"찬우야? 사람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오는 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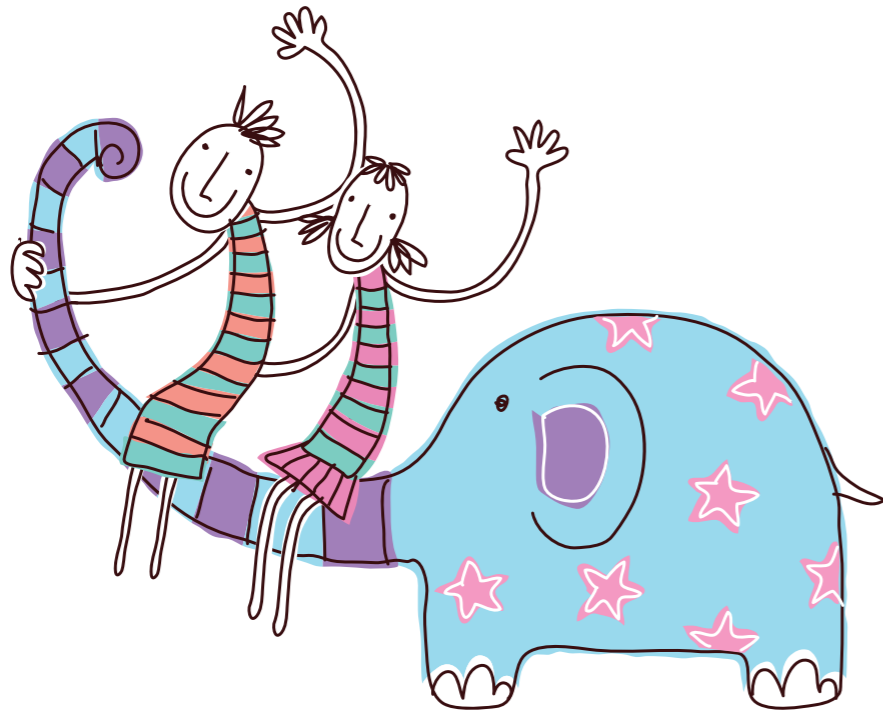
"예?" 그런 끔찍한 질문을 왜 나에게 던지냐는 듯한 눈빛과 그 알 수 없다는 예~~~~의 울림.

단 한 순간도 이 공간의 사라짐을 생각 할 수도 없다고...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냐고??

그 녀석의 눈빛에서 마음속에 그동안 맴돌았던 어리석었던 질문과 힘듦이 싸악~~ 사라지더라고요 ~ 그 힘으로 또 덤벼 봅니다.

#2019자람도서관은

2019년은 지켜낼 것과 버릴 것! 이어 나갈 것과 새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을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프로그램의 나열보다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27. 작은나무작은도서관**

#전라남도 순천시 #자산취득비

**#작은나무작은도서관_매력 #어린이전문도서관**

저희 작은나무도서관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아동 관련 도서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읽어주기,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의 도서관 견학,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연1~2회 책문화잔치,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캠프 등 동네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서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동아리 활동의 장소 제공 등 열린 공간으로 지역주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밝아진화장실 #깔끔해진화장실

간단한 화장실 부속품 교체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아이가 천장 등 교체로 밝아진 내부를 보며 “우와~”하며 소리 지르며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과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환풍기설치로 화장실 냄새 또한 깔끔하게 처리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복사기구입 #동네복사기로활용

보유했던 복사기가 종이 걸림이나 잉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수리를 의뢰했으나 제품 교체를 권장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사업으로 새로 구입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복사기를 보고 이용 아동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며 색칠하기 그림 복사요청과 직접 작동해 보고 싶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용하게 사용 중인 복사기는 지역 주민들의 팩스 및 복사가능 알림 서비스와 앞으로 있을 도서관에서 하룻밤자기, 마을 책문화잔치 등 많은 프로그램에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동안 낡고 고장 난 비품들을 사용해 오면서 새로 구입하기엔 버거웠던 경제적 어려움이 119사업으

로 말끔하게 해결 되고 보니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 감동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복사기가 고장 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업무를 봐야하는 수고로움은 "안녕~"입니다^^

가장 먼저 새로운 복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화 된 신식복사기에 작은나무도서관 출세했다며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다가와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새보물들 #행복한시간

카메라와 청소기,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여러 곳에 비교 견적을 부탁하며 업체를 방문 다니면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면서 행복한 나들이를 했습니다.

새로 들여온 보물들 사용 매뉴얼을 익히기 바쁜 시간이었지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2018작은나무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면적이 좁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엄마랑 아기가 편하게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희망하여, 지자체와 도서관 옆 빈 장소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저희 도서관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멀리까지 귀한 시간 내어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8. 작은도서관 숲으로

#강원도 인제군 #인건비성경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산 좋고 책 좋고 사람 좋고
작은도서관 숲으로는 설악산, 점봉산, 곰배령, 자작나무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펼쳐진 강원도 인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사립작은도서관으로 현재 만 4년 차에 접어들어 책과 자연의 소중함을 잘 나누고 전하기 위해 관련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와서 인제의 자연을 충분히 느끼고 머물

다 갈 수 있는 게스트룸도 운영하고 있고요. 미싱공방과 매주 1회 우리 밀빵을 굽는 공방이 함께 있어 이웃들과 정답게 만들어 가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서가 제작 #주제별 컬렉션

부족한 서가를 제작하여 주제별로 도서를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서가가 정리된 후, 도서관의 책이 말을 걸어오는 듯 한 권 한권이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해 주시며, 다녀가신 도서관 관계자들도 여유 있는 책 배치와 주제별 컬렉션을 잘 구성하였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형 온풍 전기난로 #머물다가는 공간

숲으로는 공간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건물이 노후 되고 단열이 잘 되지 않아 겨울에 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탄난로 하나에 의존하여 공간을 데웠지만 협소한 공간에만 머물러 강원도의 겨울을 나기에 쉽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 입니다. 구석구석 온기가 퍼지니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어린이집 단체 등이 방문하였을 때 이동성이 있는 대형전기난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이 적어도 추위에 떨지 않고 공간에 머물다 가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임차료 부담 #함께 만들어가기

숲으로는 후원체계가 빈약하여 매월 임차료의 부담이 운영자의 부담으로 가중되었던 터였는데, 긴급지원119 덕분에 삼개월간의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운영조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위 구성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자 한 명의 운영 부담에서 벗어나 작은도서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두가 임차료 지원으로 한 숨 돌리며 지속가능한 숲으로 고민할 수 있는 틈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재기의 힘 #여유와 계획 #선물

무엇보다 작은도서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협회의 지원이라 위로와 재기의 힘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각자 고군분투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조건 없이 원하는 지원이 되게 배려해주신 것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저희는 도서와 주제별 컬렉션을 해서 예전보다 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누구나 편하게 작은도서관을 드나들 수 있도록 안내문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대형난로 구입으로 예년보다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고, 활동가의 인건비 지원과 임차료의 지원은 앞으로 도서관의 10년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계획을 선물했습니다.

#도서관에 기대감

도서관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있어 좋았다고 하십니다. 도서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가장 기본의 역할을 다시 재고해 보고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놀이터 #소소한 이야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고 다양한 놀이터가 되어 가는 모습에서 작은도서관이 존재하는 방식과 이유를 찾게 됩니다. 책을 잘 읽지 않아도 그림책 한 권 펼쳐 같이 읽어가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값집니다.

#2019 새로운 출발 #작은도서관숲으로 #가자!

긴급지원 임차료의 지원을 신청하며, 이 지원이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차료 지원이 끝나고 운영자의 개인적인 상황도 생기는 등의 존폐를 걱정하는 사이 주위의 선생님들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자고 뜻을 모아 내년 1월부터 도서관 운영에 관한 재정 및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 숲으로가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작

은도서관의 안정된 구조가 만들어져 마을에서 작은도서관과의 긍정적인 경험과 활동을 펼쳐가며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지원과 관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9. 작은도서관 완두콩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건비성경비

#소중한 꿈함께 키우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완두콩입니다. 동춘교회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책과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도서관으로 2012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고등학교 과학동아리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과학책을 읽고 과학실험 하는 프로그램과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노는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완두콩 도서관은 어린이 한명 한명의 소중한 꿈을 함께 키워가는 도서관입니다.

#인정 #보람 #힘

저희 도서관은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도서관에 매일 나와 봉사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는데 나름 인건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어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들 때도 있지만 도서관을 위해 그리고 책을 읽는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 힘쓰시는 많은 분들 덕에 더 힘을 내 봅니다. 더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이런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있다면 그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준비 #함께 웃으며

도서관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같이 모여 다과도 나누고 함께 아이들이 즐거워 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봉사자들이 먼저 흥분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웃고 준비하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준비하고 봉사하는 우리도 벌써 행복하니 이번 행사는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봉사자들의 말이 도서관을 계속 지켜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9 작은도서관완두콩

2019년에도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도서관이 공적으로 더 활용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도서관의 과제입니다. 지자체나 협회에 바라는 것은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 작은도서관 한빛꿈

#경기도 파주시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아파트작은도서관 #우수 운영 도서관

작은도서관 한빛꿈은 파주 아파트 단지내 도서관으로서 두꺼운 자원봉사층을 두고 있는 운영 6년 차의 작은도서관입니다. 개관 이후 계속 A등급을 유지한 선도적인 아파트작은도서관입니다.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대화 나눔 #공론화

도서관 운영이 안정화되었으나 인건비 부분을 확보할 방법이 없던 차에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대해 운영자 뿐 아니라 전체 자원봉사자, 지역 커뮤니티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파트 대표회의, 관리소 등과 합리적인 논의를 하여서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운영방법을 공론과정을 통해 도출해 냈습니다.

#협의결과_집단의 이기심이 아니라 문제점으로 인식

1) 아파트 협의체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서 할 수 있는 지원하겠다. 공동주택규약 변경 시기가 왔을 때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약 변경 시도 하겠다. (사실 변화 내용은 없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서관의 문제 사항을 ‘집단의 이기심’이 아니라 ‘문제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큰 소득입니다.)

2)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도서관으로 돌아가기

파주시와 경기도가 함께 지원해주는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자체지원금 20만원으로 운영하고, 자율적 독서프로그램, 119와 같은 도서관을 위한 공모사업 등은 협의 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해

내부적인 문제가 극에 달하는 동안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정사항은 차차 주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용자로서는 문화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 외에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 없고, 내부 사정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은 많이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폐관 NO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 관리소장이 ‘도서관을 폐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2019 독서로 회기 시도 #시즌2: 자립을 꿈꾸다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은 작은도서관을 이해에서 오는 배려가 느껴집니다. 책친구 사업, 인건비 지원의 119사업, 스스로 아카데미 같은 사업은 작은도서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지원에 힘입어 한빛꿈은 시즌2: 자립을 꿈꾸려 합니다. 내년엔 다시 폐관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을 힘들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독서로 다시 회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게 한 이번 지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이 힘들다면 멈출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평가서류는 작은도서관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평가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이런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우리 도서관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119와 같은 사업을 기획해주시는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감사드립니다.

31. 작은도서관 꿈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과금 #임차료 #시설보수비



#부모님과 아이의 쉼터

작은도서관 꿈터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쉬어가기 좋은 도서관입니다. 성인도서와 아동도서를 다량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책만 읽은 것이 아닌 책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아동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아이와 보호자가 좀 더 가까워지며 아동이 책에 거부감 없이 재미있는 놀

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점입니다. 이 외에도 매달 이달의 도서를 선정하여 유익한 책들을 추천, 제공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의 집에 잠깐 놀러온 것 같이 편한 분위기로 이용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곰팡이 보수공사 #봉사자 덕분

긴급지원119 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계속 미루고 있던 시설 보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설렘이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벽지 보수 공사를 하였는데 인건비 문제는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봉사자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운영비와 공간 보수공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현재 2층에 도서관을 운영 중인데 비가 세는 바람에 천장 쪽에 곰팡이가 생겨 도서관 내부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게다가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종이책이 많기 때문에 책에도 혹시 곰팡이가 필까 걱정되던 찰나에 사업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도서관 운영 중 가장 걱정스러웠던 임차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한시름 덜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 지원 #도서관에 집중

임대료와 공과금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달 임대료비용에 힘들었는데 사업을 통하여 몇 달만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따로 일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이 외에도 다른 도서관 일에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봉사자들 관리 등을 혼자 해내다 보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119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보수작업을 한 벽지가 말끔해 지니 도서관의 분위기도 훨씬 좋고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걱정에서 해방되니 몇 달간은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도서관 일에만 집중하며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 끝나버리면 앞으로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후에는 또 정신없던 예전과 같아질까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몇 달간 도와주신 것과 도서관의 보수가 끝난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k-pop 열풍 #다양한 문화 공간**

밝아진 도서관의 분위기를 보시고 도서관 프로그램실의 한쪽을 거울을 붙여 좀 더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 k-pop의 열풍으로 아이돌의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따라하는 등의 열풍이 불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활동을 시행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춤으로써 도서관 및 다른 프로그램을 멀티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을 설립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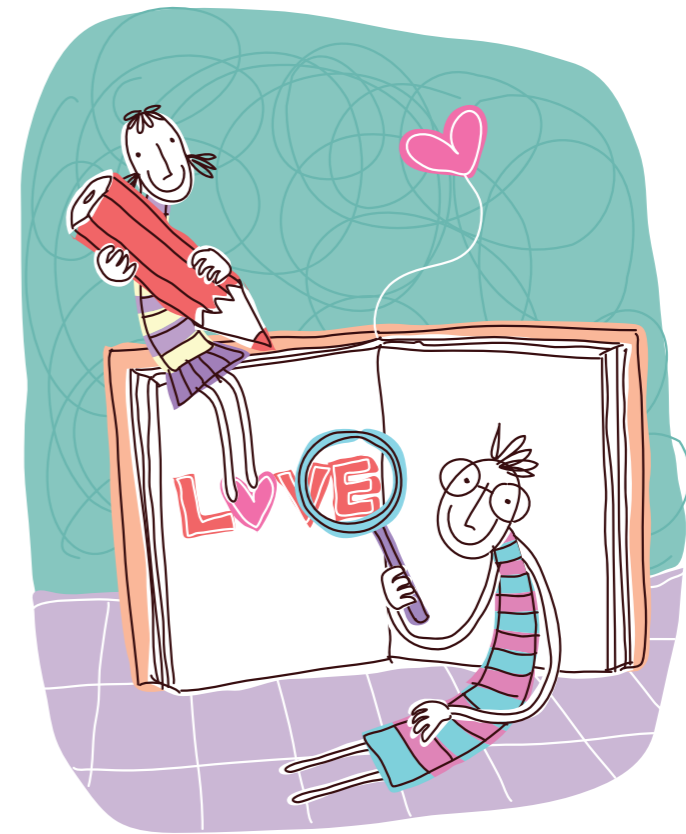
#도배 작업 #에어컨 #가슴 짱~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도배작업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여름에 먼지로 인해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작업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을 마치고 나니 봉사자분들이 정말 하기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2019 작은도서관꿈터는

이런 감사한 사업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에 조금 욕심일지 모르나 우수한 기관을 몇 곳 선정하여 좀 더 오래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

난 몇 달간 금전적인 문제를 급하게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정신적 육체적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좀 더 쾌적하고 밝은 공간에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말 쉼터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2019년에도 사업을 이어가신다면 참여의 의의를 비추며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로 접고자 합니다.



32. 제주치과의사신협 부설 불기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산취득비



#불기도서관 #인문고전전문도서관 #君子不器

제주치과의사신협 부설 불기도서관은 국내 최초의 '인문고전 전문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특정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뜻의 <논어> 첫 구절인 '군자불기'(君子不器)에서 이름을 얻어왔습니다. 인간 세상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과 2차 문헌을 문학, 철학, 역사뿐 아니라 사회과학, 예술, 과학, 종교 등 분야를 막론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치과의사신협의 수익금 및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추천위원들을 위촉해 이들이 추천한 도서를 위주로 수집, 2018년 현재 약 5천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전을 읽기 위한 인문강좌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층적 고전읽기' 방식은 한 권이 고전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의 인문학강좌를 지금까지 100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시도를 전해 듣고 박원순 서울시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등이 방문하여 성원을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이용자용 PC #책꽂이 제작 #PC존 공간

저희 도서관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도서를 대량 구입하고 있는데, 최근 서가 부족으로 인하여 도서 배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특성상 철학 파트에 속하는 도서들의 입고가 많은데, 철



학 파트 서고가 부족하여 배가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거나 다른 파트 서가에 임시적으로 배가해놓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 도서관내 컴퓨터는 사서용 PC 한 개만 있어서, 도서 검색을 위한 이용자용 PC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좌 프로그램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도서관의 특성상 자산취득이나 시설보수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런 와중에 '긴급지원119' 사업 공고를 전해 듣고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정을 해주신 덕택으로, 서고 추가 제작을 하여 방지되어 있던 입고 도서들을 원활하게 배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도서관 이용자용 노트북 PC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도서 검색 및 자료 열람 등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신규도서들을 추가로 구입 및 배가할 계획이며,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이용자용 PC존 공간을 보다 세련되게 구성하고, 별도의 공간 마련에 관한 더 많은 논의와 함께 실제 구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체계적 배가 #깔끔한 정리 #전문성 강화

가장 좋은 점은 앞서도 언급했듯 그간 방지되어 있던 신규 입고도서들을 체계적으로 배가할 수 있게 되어 도서관 전체가 매우 깔끔해졌다는 점, 효율적인 도서 배가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문고전 도서관'을 표방하는 만큼, 저희 도서관은 전문적이고 소장 가치가 높은 책들을 엄밀하게 선정하여 구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배가 방식이나 진열 상태는 그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보기에 불편함과 더불어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고, 사서로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긴급지원119 사업을 통해 서고가 늘어나면서는 배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덕택으로 소중한 책들이 체계적이고 한눈에 보이

게 진열되어 도서관 자체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용의 편의성 #검색 용이 #만족감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기존에 뻑뻑하게 배치된 서가에서 책을 꺼내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었고, 서가 부족 문제로 배가되지 않은 도서를 찾는 과정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서고 추가 제작 덕택으로 책장 칸마다 여분 공간이 확보되어 책을 꺼내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월해지고 기존에 배가되지 못했던 책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매우 증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찾고자 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서에게 물어보거나 일일이 서고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이용자용 노트북 PC 구입을 통해 찾고자 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여부, 어느 위치에 진열되어 있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PC존 자리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해당 도서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검색도 용이해져 만족감이 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설치 #관장 #직원 #함께 작업

도서 정리를 위해 관장님(제주치과의사실험 이사장)과 전 직원(제주치과의사실험 직원들)이 모여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꼬박 이틀 동안, 새롭게 설치된 서가에 도서들을 새로이 배가하고 도장 찍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서가에 배분된 파트를 완전히 통째로 바꿔야 했기에 (문학 파트를 철학으로 옮긴다든지, 사회과학 파트를 문학으로 옮기고, 예술 파트를 사회과학 파트로 옮기는 등)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사서가 한 명이어서 만일 저 혼자 이 작업을 진행했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았지만, 불평 하나 없이 서로 격려해가며 노력해준 덕택으로 수월하게, 그리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틀간의 기억이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19 불기도서관은

올해 저희 도서관은 입고 예정이었으나 서고 부족 문제로 그간 구입하지 못하였던 도서들을 한꺼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보다 강좌를 조금 줄이는 대신 도서 구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보다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해주신 이용자용 노트북 구입 이외에도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실행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일 내년에도 같은 사업이 또 진행되었을 때 도움을 주신다면 향후 도서관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3. 진주여성회 부설 달팽이어린이도서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건비성경비 #공과금



#자연과 더불어 #책과 만나는 곳

진주여성회 부설 달팽이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위치합니다. 2003년에 하대1동, 하대2동, 초전동, 옥봉동, 상봉동 5관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현재에 위치한 1관의 도서관만 남아 있습니다. 책읽는 엄마 하늘소1-5기, 역사야 놀자, 빛그림제작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책과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들이 들어주는 빛그림상영과 청소년이 선생님이 되어 청소년 교육나눔으로 다양한 계층의 소통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남강이 흐르는 길목 강가에 자리 잡고 있어 2층에 도서관에서 밖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니, 독수리, 물오리가 철철이 놀러 오고 강이 얼었다 녹았다하는 모습을 만나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자연과 더불어 책을 만나는 곳, 달팽이어린이도서관입니다.

#시원한 여름 #많은 이야기 듣기 #체험 활동

여름, 겨울 난방비 때문에 늘 힘들었습니다. 각종 재정사업에 심지어 난방비가 가장 정점에 달할 때는 여름휴가, 겨울방학 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공과금 지원 덕분에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인건비 지원 역시 애써 몸부림치며 재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 아이들의 여름방학기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행과 체험활동으로 도서관이 사랑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일 집중 #겨울 고개?

재정적인 부분이 해소되어 다소 도서관 일들에 집중도를 높여 소통과 나눔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찾아오니 다음 고개는 또 어떻게 넘을지 고민이긴 하네요.ㅎ

#재정 마련 #긴급지원119

이용자들은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제껏 걱정하지 않도록 크게 내색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정마련으로 작은 소품이나 과일, 주점을 할 때마다 적극적인 구매자가 되어주셨죠. 주점은 언제 해? 여전히 궁금해 합니다. 올해는 2018 긴급지원119가 있어 넘어갑니다.

#도서관 일상 업무 #전담사서 #활동비

이용자나 주민이 알고 있는 도서관의 일상의 업무는 대출 반납업무, 도서관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자원활동가들이 도와주고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서 더 많은 도서관 운동을 펼치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킵니다. 하지만 회계, 보고서 작성, 각종 행정업무, 회의 수발 등은 전담사서가 서비스하는 게 일의 능률과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전담사서에 게 제때에 활동비를 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2019 달팽이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이용해주는 이용자도 필요하고 책과 만나게 해주는 사서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나눔과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자원활동가도 필요합니다. 도서관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펼칠 수 있습니다. 사익이 아닌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자원활동가나 자원봉사자에게만 의존한다면 문을 닫는 도서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119사업처럼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간을 지원해 주는 일들을 해주세요.

34. 책문화공간 봄

#광주광역시 남구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동네 카페 사장님 공간 무료 임대 #마을도서관
책 문화공간 봄은 마음 좋은 동네 카페 사장님이 카페 2층을 무료로 임대해주셔서 2013년 개관하여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도서관입니다.

#노트북 #영화인문학 프로그램 #밤의 도서관

기존의 컴퓨터가 노후화 되면서 컴퓨터 없이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출관리용 노트북을 구입했고 대출관리용 뿐 아니라 빔 프로젝트 수업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시간이 밤 10시까지라서 야간시간 봉사자 없이 자율개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주 2~3일 봉사자가 계셔서 작장인들을 위한 독서 동아리와 청소년들의 도서관 저녁시간 이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녁시간 어르신들의 논어 공부 모임도 결성되어 밤의 도서관이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기대장 #도서관의 기본

작년까지 책 문화공간 봄은 야간시간에 문만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올해 많은 독서 동아리가 생겨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함께 생겨났고, 예전에 수기 대장으로 쓰던 도서관리를 도서대출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도서검색, 대출기간 등 그야말로 도서관의 기본을 하게 되어 운영자, 봉사자, 이용자 모두가 도서관의 순기능에 푹 빠져 있습니다.

**#토론 소리 #마실 #호기심**

주민들은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까? 노란 불빛 아래 밤늦게까지 토론소리가 나는 도서관은 어떤 기분일까? 저녁 먹고 가족들과 잠깐 마실이라도 나가볼까? 늘 이용자와 주민들은 책 문화공간 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호기심과 설렘으로 오고 계십니다.

#봄처럼 #감동

책 문화공간 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오전 오후 저녁시간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11월 어느 날 봄에 오셨던 이용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멀리에서 오신 분이 자신의 집에 봄처럼이라는 글을 적어두셨다고 해서 다들 감동이었습니다.

봄처럼 활기 있게, 봄처럼 사랑스럽게, 봄처럼 행복하게, 봄처럼 감동 있는 날이 되고자 한다는 이용자의 말이 모두 감동 받았던 올해의 말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 긴급자금 119를 통해 하루 10시간 감동 있는 도서관이 되었던 날들이었습니다.

#2019 책문화공간 봄은

5개월 동안 열심히 움직인 한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밤시간 활발하게 움직이던 도서관이 내년 야간시간대 그냥 공간으로만 이용이 될까봐. 현재로는 내년 사회공헌 일자로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 2회 저녁 2~3시간 봉사 가능하신 분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야간 도서관 개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5. 책마실작은도서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산취득비



#대구풀뿌리여성연대부설 #여성아동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대구풀뿌리여성연대(구.북구여성회) 부설기관인 책마실작은도서관은 대구지역의 풀뿌리운동과 여성운동을 함께 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의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며 경력 단절여성이나 육아가 힘든 여성, 더불어 지역의 아동, 주민들을 모두 품고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도서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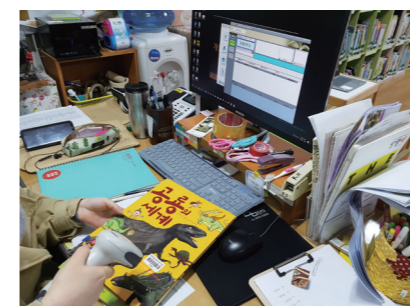
#컴퓨터 교체 #대출 관리프로그램 #이용 편리

책마실작은도서관이 개관한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컴퓨터등은 낙후되어도 교체가 힘들었고 특히 도서관의 대출관리 프로그램을 빌려와서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는커녕 혹시 회원 데이터들이 사라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쉽게 책을 찾지 못하고 매번 도서관운영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긴급지원119를 통해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그 컴퓨터에 정식대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용자들도 손쉽게 도서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새로이 설치하게 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가구성을 명확히 하고 도서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검색대

처음 사업을 신청할 때 먼저 떠오른 것은 도서관의 컴퓨터와 대출관리프로그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일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낙후된 도서관의 곳곳에 대한 공사, 세 번째가 인건비였습니다. 거의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이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고민되었던 낙후된 컴퓨터의 교체와 안정적인 대출관리프

로그설치 나아가 도서관 검색대까지 설치할 수 있어서 도서관의 운영이나 이용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번째, 세 번째 고민은 남아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해소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간의 변화 #기대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도서검색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된 것에 무척 만족도가 높습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물어보시는 입장에서선 매번 데스크에 물어본다는 게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미안한 일이기도 하나가요.

이용자들도 책마실작은도서관을 상시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공간에 대한 바람도 높으십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흔적들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에는 공간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초등학생 #도서검색대 이용

무엇보다 대출관리프로그램을 깔고 처음으로 대출하던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용자분들 대부분도 대출관리프로그램이 새로이 설치되고 운영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모두 내일처럼 즐거워 해주셨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와서 도서검색대를 이용하며 책을 찾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답니다.

#2019 책마실도서관은

#거리도서관

이제 12년을 맞이하는 책마실작은도서관은 그전에 해오던 단체의 통로역할을 여전히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도서관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것을 수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도서관을 더 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들어 올 수 있도록 도서관 입구에 매주 거리도서관을 꾸밀 예정입니다. 또 이용자들이 쉽게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를 검색하면 바로 서가에 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 할 예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서관의 자원활동가들이 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학교를 통한 사서교육이나 독서문화기획에 대한 공부도 할 예정입니다.

협회에 선생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큰 도움을 주셔서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36. 초록나라도서관

#서울시 도봉구 #인건비성경비



#팅커벨 지킴이

초록나라도서관은 도봉산계곡물이 마을로 흐르는 개울 옆에 있으며 5명의 Tingkabel 지킴이들과 상시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마을의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향기

인건비성 경비를 받고나서 Tingkabel들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냥 도서관 지킴이 외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마을과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또 도서관에 오는 이용객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용자들 또한 도서관의 향기가 어딘가 모르게 바뀌었다고들 합니다.

#동네 흥반장

2018년도 초록나라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함께 하는 날들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힐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5년 이상 된 자원활동가들이지만 작은도서관의 한계인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다보니 활동가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프로그램 기획이나 마을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고 나서 동네 흥반장처럼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진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몸이 고되었는데 아주 즐겁게 2018년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프로그램 풍성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작은 소명의식이 가슴에 담겨져 있는거 같습니다. 활동비가 있든 없든 늘 자리를 지켜주고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도서관을 잘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초록나라작은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텀커벨(자원활동가)들 역시 초록나라도서관을 지켜주고 있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도서관을 이야기하고 책을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소소하게 조용히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의 공간에서 다시 이사를 해야 하지만 마을 자원활동가들이 잘 운영해 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자주 만나는 모임(단체)이 4개로 늘어남/ 초록별(공동육아모임), 그림책동아리, 마을학교 강사모임, 빛그림 동아리들과 향후 2019년도 도서관 요일 프로그램 사업추진 논의 중이며 동주민센터 연계 가족프로그램 및 혼밥하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향후 진행예정입니다.



37. 텃밭인문학작은도서관

#충청남도 아산시 #자산취득비



#100년 된 한옥을 도서관으로 #농촌마을의 문화커뮤니티 센터 역할

텃밭인문학 작은도서관은 100여년 된 한옥 사랑채와 안채를 아산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 곳입니다.

텃밭인문학 작은도서관은 삶에 바쁜 사람들에게 책을 읽고, 산책하고, 흙을 만지면서 채소를 길러내고, 공기와 풍경의 변화를 관찰하는 일상

이 작은 행복을 제공합니다.

지역의 독서문화 보급과 평생교육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문화시설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손쉽게 책과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문화커뮤니티 센터 역할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젝터 #독서캠프 #별자리이야기

2018 긴급지원119 사업으로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독서캠프, 책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양한 활용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소리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접근하는 좀 더 풍요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텃밭인문학 작은도서관에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2018. 1박2일 독서캠프에서 그리스로마 별자리

이야기를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봄이 되면 봄날 야외 소극장으로도 활용 해볼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것 #곤란한 문제해결

이번 긴급지원119 사업은 작은도서관들의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 해주셔서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문을 다양하게 열어 꼭 필요하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

다. 아산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제안하여 2019년 작지만 예산편성을 받아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작은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영화 #정기적인 프로그램

저희 도서관 이용자들은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영화도 보자고 제안 하셨습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지원금이었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는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5곳이 넘는 곳에 견적을 요청하고 기능과 디자인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교육기자재(프로젝터, 컴퓨터)를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만족스럽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 텃밭인문학작은도서관은

농촌은 교육의 격차만큼이나 도서관 이용이나 독서문화 경험도 빈부의 차가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공유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서뿐 만 아니라 평생교육적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텃밭인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융합하여 보겠습니다. (예: 텃밭정원을 함께 가꾸고 식물에 관한 깊이 있는 공부도 병행)

38. 푸른나무작은도서관

#세종시 조차원을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동네 이모들의 손길

2008년도에 등록한 푸른나무작은도서관은 그 전부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초대 관장님의 바람을 동네 이모들이 만든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적은 수의 이모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운영되던 도서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위치한 아파트 이모들이 아닌 동네이모들의 손길로 모두 무료 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간도서도 구입하여 도서관을 많은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청소기 #인건비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였고 처음 공기청정기만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유지보수 때문에 고민하던 중 청소기 고장으로 저렴하게 두 가지를 구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장소에 비해서 공기청정기가 작지만 아이들이 앉아서 책보는 영유아 책꽂이 근처에 비치하여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수 없이 운영되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챙겨드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서구입시 라벨작업과 도서관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짧은 시간동안 봉사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



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한사람이 업무를 분담해주다보니 운영에 더 활성화가 되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기 패널 #환경 개선

현재 도서관은 바닥이 전기패널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 패널부분이 끊어져서 어느 부분은 차갑고 어느 부분은 따뜻합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모든 곳이 좀 따뜻할 수 있게 환경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유급 봉사자 #무급 봉사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봉사자분들이나 제가 유급봉사자라고 생각하시다가 모두 무급봉사자이면서 계속 자신의 시간을 내서 봉사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시면서 고생하시고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2019 푸른나무작은도서관은

인건비 보조를 한 번 더 받아서 운영에 정착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지원해서 도서관 난방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동네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도서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작은도서관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모든 동네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용하고 움직이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9. 푸른도서관

#경기도 파주시 #시설보수비 #자산취득비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꽃 피우는 도서관

저희 푸른도서관은 경기도 북부 파주에 위치한 빌라 단지 내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지 내에 있지만 입주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자그마한 사랑방처럼 생겼는데 오시는 분마다 아늑하고 따뜻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넓은 마룻바닥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답니다. 아이들에겐 하교 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며 도서관이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고, 성인 분들에겐 그림책도 함께 나눠 읽고 바느질도 하며 그림도 그리는 동아리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긴급지원119 사업으로 화장실을 새 단장을 하면서 이사 온 집처럼 모두들 좋아하며 더 많은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책을 구비해 놓으므로 남녀노소 책을 찾아보는 재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화장실

항상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둡고 칙칙하며 관리실의 집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가기 꺼려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라 '저걸 어떻게 치워야 하지?' 고민만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지요. 하지만 저희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화장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관리실 소장님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매번 "치우기는 해야 하는데 글썽요 어디다 치워야 하죠?" 라고만 하셨는데 직접 인테리어 업체까지 연락해주시고 견적까지 받아주시면서 화장실의 집기들을 단 이틀 만에 싹 치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직접 소장님께서 업체에 말씀도 잘 해주셔서 LED 등으로 교체도 해주시고 환풍기도 새로 달아주시면서 쾌적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단지 청소하시는 분께 직접 요청도 하셔서 매일매일 화장실 청소까지!! 대박이죠^^) 깨끗해진 화장실에 예쁜 인테리어 스티커도 붙이고 방향제도 놓고요. 운영자 선생님들과 화장실 꾸미는 일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도서관에 오면 스스로 먼저 화장실에 가서 손도 깨끗이 닦고 무서워서 선생님과 같이 가는 화장실에도 척척 잘 다닌답니다.

#가난한 도서관 #단비

도서관에 들어오면 칠판을 가려놓은 굵은 철사로 덜렁덜렁 매달려있는 빔스크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도서관에서 영화 상영을 하였는데 20년이 다된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으로 흐릿하게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칠판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스크린이 흘러내리지 않게 또 다시 굵은 철사로 묶어 놓아 고정시켜 놓고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런 위험한 스크린이 무겁게 걸려 있

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할 때 편히 펼쳐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스크린을 구입하면 어떨까 그런데 우린 돈이 없는데... 그냥 사용하자였습니다. 또한 성인 이용자 분들이나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면 “ooo 책 없어요” “oooo 신간도 아닌데... 혹시 구입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언제 도서를 구입 할지는 모르지만 희망도서로 신청해주세요.”라고 받아만 놓고 못사는 책들이 많았답니다. 우리는 왜 항상 가난한 도서관이 되어서 이름만 도서관이지 이용자들을 자꾸 떠나가게 만들까? 고민만 하던 찰나에 긴급지원119사업이 저희에게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동형 빔스크린을 구입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고 안전하게 한쪽에 비치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빔스크린이 온 날이 생각나네요. “우리 영화 보는 날은 아니지만 한번 새로운 걸로 볼까?”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빔스크린의 사이즈부터 남달라서 “우와~ 영화관 같아요! 전에 것 보다 깨끗하게 보이고요. 우리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흥분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왔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엄마들은 사실 도서관이라는 곳은 조용해야한다는 규칙으로 발걸음이 어려웠는데 달라진 도서관이 입소문이 난 후로 “여기에 이런 도서관이 있었네요~”, “아기 데리고 와서 책보고 놀고 싶어요~”, “신간 이거 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하하하 요즘은 이런 맛에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하교 후엔 도서관으로 go~

도서관의 작은 변화가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요 몇 개월간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아이들과 프로그램이라도 하고 싶으면 재료비 및 홍보에서 막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쓸 수 있는 운영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이 돈을 쓰면 우린 책을 못사는데 항상 걱정하고 도서관 활성화 못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운영자가 도서관을 열심히 꾸려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졌는지 저희가 긴급지원119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하셨어요? 하면서 다들 최고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발전하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관장님께서도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설득하더라도 도서관 운영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아이들과 책놀이 활동을 하면서 재료비에 별별 떨지 않고 즐겁게 수업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도서관이 아이들이 하교 후 집에 가기 전에 꼭 들리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로 이어지는 희열이 아닐까 합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곳

저희 도서관의 주 이용 연령층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그리고 이 자녀를 둔 엄마들입니다. 도서관에서 즐겁게 책을 보며 책놀이 활동을 하고 안전하게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지도아래 있다고 생각하시어 도서관이면 두 손 들고 환영을 하십니다. 가끔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음식도 보내주시고요^^ 이용자분들과 주민들은 저희 도서관에서 서로 어울리며 공감하고 책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도서관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구상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야겠지요.

#사노요코_북큐레이션

저희 도서관에는 그림책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림책을 운동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육아 때문에 지친 엄마들의 소통의 장이 주된 목표입니다.

“사노 요코 책을 읽고 나누고 싶은데 도서관엔 없어요.” 육아에 많이 지친 동아리 회원 중 한 분의 말씀이었어요. 저도 사노 요코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하여서 알지만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을 만드셨구나...’를 느낄만한 책이 우리 도서관엔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서 구입으로 짜잔!! 사노 요코 작가 북큐레이션을 할 수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 책 읽고 나누고 싶네요.”라고 하시면서 운동을 하는데 아~그랬구나... 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생일날 우리 아이에게 꼭 읽어 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빌려 가시더라고요. “저 사노 요코 만나서 힐링이 되었어요.” 하시면서요. 그림책 동아리의 회원 중 한분인신 그분은 지금도 사노 요코의 『자식이 뭐라고』, 『사는 게 뭐라고』, 『시즈코 상』을 읽으며 널리 널리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 한 마디를 붙이시면서요. “이거 푸른도서관에 있어요~ 빌려 보세요~!!” 라고요.

#2019 푸른도서관은

올 한해는 정말 긴급지원119를 만나면서 풍성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 저희 도서관에서는 장서를 선별하여 아이들과 책놀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책읽어”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읽자”가 되는 2019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도록 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지면 저희 도서관에서 노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40. 푸른어린이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인건비성경비



#동네문화사랑방 #푸른마음 자라는 곳
 산성동 동네 골목에 위치한 <푸른어린이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설립한지 10년이 넘는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입니다. 책도 보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푸른 마음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도서관 안정화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도서관 운영에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삶과 책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에게 책을 골라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집중이 이루어져서 보람되었습니다.

#정부지원정책 절실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어서 도서관 운영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활동가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턱 낮은 도서관

동네 가까이에 문턱 낮은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용자들은 행복해합니다. 이용자들이 더 쾌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서 추천

도서관 상근활동가로 일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은 이용자에게 도서를 추천해줬을 때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책을 보고 와서는 “재미있었다. 또 다른 책 좀 알려주지라.”라고 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9 푸른어린이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10년 넘도록 운영하면서 한 순간도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세 걱정, 인건비 걱정, 운영비 걱정 없이 이용자들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41. 풀뿌리미디어도서관

#인천시 서구 #인건비성경비 #자산취득비



#더불어 살아가기

풀뿌리미디어도서관은 마을에서 편안한 쉼터이자,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고 제자인 배움터이며, 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슬로건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들이 십시일반 출자하여 지금의 공간을 만들고 매일 요일별로 상근을 책임지며 풀뿌리미디어도서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역 내에서 작은도서관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며 좋은 인연을 만나 도서관에서 함께 활동도 하는 등 우리들의 발자취가 알알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풀뿌리미디어도서관은 가야할 방향을 다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책꽂이 제작

본 도서관은 양면서가 책꽂이와 신간서적 책꽂이를 주문, 제작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매번 책꽂이를 기증받거나 아파트 재활용 하는 곳에서 주워 와서 책을 꽂았는데 공간 크기에 맞게 주문제작하여 도서관이 보다 환해지고 정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빠그덕거린 책장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제자리에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원활동가 #사비충당 #귀한 인연

자원활동가 인건비로 도서관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비 절반은 교육비로 사용하여 도서관을 통해 자원활동가들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배운 것을 또 다시 도서관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순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비나 식비, 하물며 교육비까지 사비로 충당해야 했던 상황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만나 상근활동가가 된 귀한 인연을 작은도서관에서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지원119는 오아시스

119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업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마련하고자 지원사업을 쫓으면 그에 따른 일이 더 많아서 회의적일 때가 많았는데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사정을 잘 알

고, 어떻게든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 웬만한 행정부분을 다 처리해주셔서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문제작한 서가는 도서관의 정갈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 일별 상근활동가들이 새로운 서가를 들여오던 날 책장을 함께 나르던 기쁨은 올 한해 상근자들끼리 맛볼 수 있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활동가 인건비는 공간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3년 동안 인건비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상근활동가들이 교통비와 식비, 교육비를 충당하는데 상당부분 일조하였으며 상근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갈끔해진 도서관

특하면 도서관 문닫는 날이 비밀비재하였는데 올해는 그런 날이 극히 드물었으며, 서가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주 오셨던 분들은 도서관이 달라졌다며 하나같이 도서관이 갈끔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벗 #채움의 기회

→ 무엇보다 상근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하나하나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마다 보람되었고, 함께 공부하는 벗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뻐합니다. 재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도서관에 남게되고, 그 사람들이 그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채움의 기회가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기운으로 인연을 맺어간다는 것이 지금의 척박한 세상살이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9 풀뿌리미디어도서관은

본 도서관은 내년 9월에 지금의 공간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은 교회와 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어서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공간도 작아서 더 많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지원사업을 포함 2018년 본 도서관 평가에 공간을 이전해야 한다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9년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9지원사업은 기간이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5개월의 단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계획을 잡거나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향후 119 지원사업이 계속된다면 이점 적극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42. 하늘벗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자산취득비



#주민들의 사랑받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하늘마을1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하늘벗도서관입니다. 1,3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서 작지만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 도서관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전기세 걱정 끝

하늘벗도서관은 11평의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공간도 좁은데 효율 낮은 큰 스탠드 에어컨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여름이면 이용자는 많고 전기료는 걱정되고 무척 난감한 여름을 보내고 있던 참에 이 사업에 공모하게 되었고 선정되어 너무 기뻐했습니다. 스탠드 에어컨 자리는 앓을 좌석으로 확보되고 전기료도 절감되어 이제 여름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환경

지원받기 전 저희 도서관은 서가(책장) 배열도 정돈되지 않아서 더 공간이 좁아보였는데 11월에 도서관이 LH(임대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공간을 늘린 것은 아니지만 기존 책장을 교체하고 정비하였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으로 지원받은 에어컨은 리모델링 된 도서관에 더 할 수 없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번 사업에 선정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도서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주민들과 공유했습니다. 늘 우리도서관을 열악하게 생각하셨던 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통해 더욱 더 좋아지는 환경을 누리며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한층 더 높

아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슬램프 속 거인

선생님, 이젠 에어컨도 구해 오시네요.^^ 다음엔 어떤 걸 구해 오실건가요? (어린이 이용자가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무슨 알라딘 요슬 램프 속의 거인이 된 듯 우쭐한 느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다음엔 또 어떤 걸 구해 와야 하나' 하는 부담감도 살짝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뭔가를 구하러 또 119를 두드려야 겠습니다.^^

#2019 하늘벗도서관은

하늘벗도서관은 운영사서가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이롭게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 될 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으나, 방향은 그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협회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늘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하여 무한봉사가 아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답을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건비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하여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43. 하늘을나는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 #임차료 #시설보수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 #책과 사람이 살아숨쉬는 도서관 #문학특화

하늘을나는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가꾸는 독서문화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에서 2012년 11월 3일 개관한 목포지역 최초의 민간도서관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로서 '책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도서관'을 지향하는 책 문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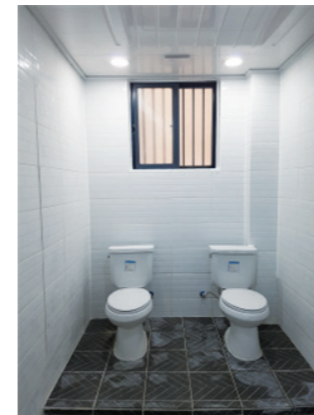
°장서는 좋은 어린이 책을 근간으로 매달 새 책을 수서하고 있으며 좋은 문학책이 많은 문학특화를 꿈꾸는 도서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지향하는 단체이니 만큼 전집이나 학습만화는 수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하고 있는 책은 7,000여권 정도입니다.

#달라진 환경 #장기대출 #찾아가는 도서관

노후되고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대해 유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말씀하셨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 선불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2018 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에 시설보수를 지원한다는 사업내용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 도서관이 선정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도서관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었습니다. 공사가 한 여름에 진행되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계획보다 휴관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이용자분이 불편하였지만 화장실 공사 후 달라진 환경은 도서관의 전체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받아 인근 초등학교에 학급문고를 만들어 도서관 장기대출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 및 40명의 1학년 아이들에게는 직접 그림책을 한권씩 선물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진행

긴급지원119 사업을 지원받아 환경이 좋아져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도서관이 좀 더 활기차졌으며 새로운 성인독서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운영의 안정화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도서관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편안한 환경 #좋은 책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반겨주는 따뜻한 웃음이 도서관을 다시 찾게 되는 첫 번째이고 편안한 환경과 좋은 책들,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예뻐졌네요.”, “화장실이 좋아요.”, “또 읽어주세요.”, “도서관에서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라는 아이들 이야기꽃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2019 하늘을나는작은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특성상 후원회원들의 정기적인 후원이 안정적인 운영의 큰 핵심입니다. 내년에는 도서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 공모사업 및 다양한 공모 사업을 찾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접목시키고 여러 동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44. 하늘채문화의집

#경상남도 창원시 #자산취득비

#아파트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하늘채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은 2천세대가 조금 안 되는 아파트 관리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학생들의 독서 갈증을 해소하기 딱 좋은 도서관이고,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의 장으로도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남녀노소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요구사항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만8천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3천여 명의 회원분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종도서에서 2백여 권의 도서, 2016년 3월부터는 한국잡지협회에서 40여종의 잡지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내서지역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한 작은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가 구입 #안전

아파트 단지 내의 도서관 특성상 아이들의 이용이 빈번한데 노후되어 들쭉날쭉한 서가환경으로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도서관을 친구처럼 내 집처럼 이용하려면 안전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오래된 내부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변화 #성취감 #만족도

새로운 서가로 정비되어 안정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달라졌습니다. 다른 도서관 견학을 할 때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서관도 일괄적인 서가와 아늑한 공간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 공간을 사진에 담고 머릿속으로 꿈꿔왔습니다.

긴급지원119 자금은 현재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 일으켰다고 봅니다. 서가 배치 후 도서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이용자들의 한 분 한 분 반응에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께는 직접 설명하고 자랑까지 하게 되더군요. 실무자의 성취감은 곧 이용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19지원사업 선정으로 자신감 회복 충분입니다.



2018년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우리 아이들의 행

복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용자 바람들

30대 여자 : 사서선생님이 친절하다 프로그램 수용능력이 좋다

40대 여자 :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다

30대 여자 : 성인 강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실무자 10년차 #수고했다 #눈물 핑

도서관 실무자로 일한지 10년차~ 2018년 그 어느 해보다 성과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 날 관장님과 임대회장님 그리고 운영진 분들께서 하늘채문화의집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줘서 고맙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순간 지나온 나의 도서관 생활 이모저모~이용자들과의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우리 동네 소통의 장 책임자로 뿌듯하고 행복한 지금입니다.

#2019 하늘채문화의집은

정부지원사업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시설공사에 대한 논의 중입니다. 화장실 공사와 계단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라 현재 창원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귀하의 지원사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5. 해봄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칠곡군 #자산취득비

#낭독 프로그램으로 시작 #걸그룹 #경로당 방문

2015년 2월 15일 청소년 3명과 성인 2명이 낭독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개소한 해봄작은도서관은 곧 5년차에 들어섭니다. 농촌 또는 생계현장 지역에서 독서활동이란 특수한 분야를 접근하려다보니 해마다 포커스를 청소년, 성인, 어린이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에게 좀 더 집중되어 다양한 계획으로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카시아꽃축제, 신동초등학교의 신동제축제, 면소재지 경로당 방문 등으로 지역 깊숙이 책이 주는



재미를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군의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 들이는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현재는 초등학생으로 이루어진 걸그룹이의 경로당 방문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보드게임중심으로 독서활동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또는 필요한곳에 방문낭독도 합니다.

#지붕 설치 #쾌적한 환경

처음에는 고급책장을 신청하였다가 7월말에 폭염으로 에어컨설치와 에어컨사용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 예방을 위해 지붕설치로 변경했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문제이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심하고 머뭇거리고 결정하기까지 무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급지원119 사업이 자비 150만이 더 들어간 공사가 되었지만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에어컨 #폭염 #난방 #독서프로그램

당장에 폭염을 피할 생각으로 에어컨을 선택했는데 난방을 겸하는 전기제품이라 12월까지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무척이나 대견했습니다. 마치 새책을 구입했는데 새 책에 버금가는 생각지도 못했던 훌륭한 비서가 달려온 느낌입니다.

#에어컨 #환상적인 환경 #전기요금 걱정



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운 날씨에 더구나 올해 같은 폭염에는 도서관에 “놀러 와라, 책 보러 와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에어컨 입성과 더불어 당당하게 명랑하게 “더위 그까이꺼 ”야들아 도서관에 와라 에어컨 있다.“라고 도서관으로 놀러오라고 큰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봄도서관은 올해 4년 동안 기증 받은 책을 도서입력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여름방학 동안 에어컨이 주는 환상적인 환경에서 작업 할 수 있어서 자원봉사 학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덜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지원받은 에어컨이 난방을 겸 할 수 있는 전기제품이라 겨울에도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때 보다 더 많이 나와서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는 도서관 #공간 대여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6월에 시행했던 4회차를 에어컨이 없는 도서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주 최측과 이숙현강사님의 양해를 얻어 신동초등학교 도서실을 이용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부선생님께 9월에도 부탁한다고 했다가 에어컨 설치후로 해봄도서관에서 9월 달에 5회차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간을 빌리기까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서 홀가분했습니다.

#2019 해봄작은도서관은

내년에는 고급책장 마련과 바닥 난방 설치 독서동아리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46.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시 동구 #인건비성경비 #임차료

#다시 세운 도서관 #윗동네아저씨 #아랫동네아저씨 #책수레

운영을 중단한 마을 도서관을 아이와 어른이 힘을 모아 다시 세웠습니다. 첫 회의부터 개관식까지 호숫가사람들이 이루셨습니다. 10평짜리 작은도서관을 다시 여는 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2012년 늦은 가을 도서관을 세웠던 동네 어른들을 찾아뵙고 도서관에서 일해도 좋을지 여쭙었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3층 한쪽 벽에 있던 도서관을 마을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 독립하기로 이웃과 뜻을 모았습니다. 책장 스물한 개와 책 약 삼천 권을 옮겼습니다. 윗동네 아저씨께서 트럭을 내어 주셨고 아랫동네 아저씨께서 운전 하셨습니다. 추동교회 청년들이 도우셨습니다. 아이들이 수레로 부지런히 책을 날랐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책 천 권 날랐어요.”

새 도서관이 될 터를 마을 사람들이 직접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삼 층 증축 계획, 천문대, 땅굴 도서관, 비행기 이륙장, 다락방, 어머니 방. 설계도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설계도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회의록으로 아이 대표와 어른 대표가 함께 회의 했습니다. “다락은 만들 수 있겠다.” 회의에 오신 어른 대표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회의 후 날을 잡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들은 목공일, 어머니들은 도배일과 새 참 준비, 아이들은 심부름과 난로에 쓸 뿔감을 했습니다.

개관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개관식 포스터를 꾸미고 마을 곳곳에 부쳤습니다. 동네 나팔 부는 여고생과 우쿠렐레 치는 소년이 축하를 맡았습니다. 도서관 맞은편 경로당 회장님이 축하 하셨습니다. 어린이 대표가 환영사를 직접 쓰고 읽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소박하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동네 잔치였습니다.



#책읽는 이웃

임대료와 공과금, 인건비를 마련하는 에너지를 도서관 책 활동에 쓸 수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기획 준비 진행한 활동이 당사자인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엄마들끼리 모여 책을 읽던 모임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고 그 소리를 녹음해 동네에 퍼뜨리는 ‘책읽는이웃’ 활동으로 모임이 변화 확장했습니다. 영유아 책모임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치원 아이들과 둘레 사람들이 어울렸습니다.

#임차료 지원 #책 활동 #녹음파일 #지역사회

임차료 지원으로 도서관 총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내년 상반기 임차료 부담도 줄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책활동을 구실로 지역사회에 관계를 살폈습니다.

책읽는이웃 모임에서 좋은 글을 골라 녹음하여 마을에 공유했습니다. 녹음한 파일이 저마다의 삶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유익한 좋은 글이 도서관에서 밖으로 나가 마을에 흐르는 비전을 세웠고 얼마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관련 글 링크

영유아 책모임이 매주 진행되었습니다. 영유아 책모임에 영향을 받아 저학년 책모임과 그림책연구소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유아 책모임에 책모임 도우미 언니 오빠들과 엄마들이 늘 함께하셨습니다. 꾸준히 함께하셨던 엄마들은 그림책연구소라는 모임을 만들어 그림책을 학습하는 모임까지 만들게 되었고 연구를 바탕으로 올 겨울 방학부터 저학년 책모임을 꾸리기로 뜻을 모으셨습니다.

어느 활동이든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서관 활동가 혼자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 사업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지역사회(특히 부모님)와 의논하고 부탁하여 함께 하시도록 거들어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관계를 살피는데 힘썼습니다.

#어머니가 제안 #그림책연구소 #함께 어울리는 활동

유치원 책모임에 도우미로 참여하던 1학년 아이 어머니가 저학년 책모임을 도서관에 제안하셨습니다. 함께할 이웃을 주선했고 총 일곱 가정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들이 먼저 그림책을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그림책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그것을 구실로 함께 어울리는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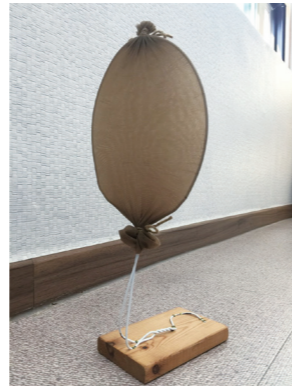


#책읽는이웃 탄생하게 된 배경

5개월 간 책읽는이웃 녹음 파일을 매주 목요일마다 나누었습니다. 책읽는이웃이 어떻게 기획 준비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요약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소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동에는 3년 째 이어지고 있는 책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엄마들끼리 모여 소리내어 책을 읽습니다. 마음이 맞을 때면 훌쩍 문학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멤버 가운데 유독 목소리 좋고 책을 잘 읽는 분이 계셨습니다.
 "좋은 목소리 엄마들만 듣기 아깝다"
 녹음해서 마을에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엄마는 며칠 고민하다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녹음 할 때 잡음을 거르는 필터,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녹음 할 때 마이크 앞에 달아 놓는 장비입니다.

소책임 멤버 한 분이 옷걸이에 스타킹을 걸어 만들어 오셨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와 용기, 엄마들의 열정이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대망의 첫 녹음 날
 책읽는이웃 아나운서 엄마가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듣다가 코끝이 시렸습니니다.

대본 가운데 일부입니다.

대학 다닐 때 3년 동안 방송반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반은 기술부, 연출부, 기자부, 아나운서부로 나누어져서 활동을 했고,
 저는 아나운서부로 방송반에 기여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학교에 와서 아침방송을 하고,
 늦은 밤까지 배우고 익히고 후배들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방송반에서 가장 큰 행사는 대학 내 가요제와 방송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이었는데
 준비기간만 세 달이 걸려 방학 내내 방송반 활동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20년 전, 성우를 꿈꾸던 청년이
 20년 후, 마을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을 줄이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절 푹푹하고 열정 가득했던 한 소녀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시절.

모든 일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으로 만들어진다는 깨달음을 알게 해 준 시절,
 그 시절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책모임 함께 하는 멤버들이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마무리 멘트도 정했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녹음 파일은 딱 다음 이야기가 궁금할 때 끝납니다.
 아! 조금만 더요!
 어쩔 때는 알미워요!
 매주 목요일 공유되는 녹음 파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는 동네 애청자 어린이들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책읽는 어린이 이웃이 셋이나 등장했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해서 듣기 시작했습니
 다.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마무리 멘트는 똑같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기다림.
 이웃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며칠 전에는 동네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도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 책읽는 이웃 소식 전하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학교 스쿨버스에서 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가워 하셨습니다.

학교, 동네 구멍가게, 마을 버스, 경로당, 마을 회관, 유치원, 카페,
 동네 곳곳에 책읽는 이웃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마음이 순후해질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꿈이 마을과 맞물려 작동하고
그리하여 정겨운 사람살이를 만들어 내는 일.
책읽는 이웃이 자랑스럽습니다.

#2019 호숫가마을어린이작은도서관은

아이들 살기 좋은 마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만한 동네

119 지원사업 전과 후 구분 없이 호숫가도서관이 쫓는 곳은 같습니다. 갈 길이 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갑니다. 우선, 2019년 1월에 할 활동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1. 2019년 1월에 책읽는이웃 아이들 편을 만들 계획입니다.

책읽는이웃 애청자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 좋은 동화를 읽고 녹음합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면 동네 할머니를 찾아가 목소리를 담아오고 바람 소리가 필요하면 호숫가에서 가만히 바람 결을 녹음기에 담습니다. 완성된 녹음 파일을 아이들이 동네 두루 다니며 퍼뜨립니다. 이 동네 저 골목에 아이들 목소리가 울리기를 기대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이 순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2. 마을 영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큰 발전소에서 잘게 흩어져, 쪼개져 마을 곳곳에 스며든 작은 발전기 큰 영화관이 잘게 흩어져, 쪼개져 마을 곳곳에서 열리는 작은 영화관

Network와 Ubiquitous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영화관
마을 어디에도 있는 영화관
그 사이에 흐르는 이웃 인정

그리고

1. 겨울은 따뜻한 거실에서 영화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2. 여러 집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이 있는데 자주 쓰지 않습니다.
3. 아이들 방학이라 이웃끼리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4. 추운 겨울 이웃 인정으로 따뜻하게 나고 싶습니다.

호숫가마을영화제 방식

1. 극장이 없습니다.

극장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웃집 거실이나 마당이 극장입니다.
있는 것을 잘 씁니다.

2. 운영팀이 없습니다.

각자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극장 주인들이 함께 의논하여 공동 팸플릿을 만듭니다.
필요하면 극장별로 개성을 담아 포스터를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입니다.

3. 검열이 없습니다.

극장 주인의 취향과 그에 따른 대화가 있습니다.
대기업 영화관에 맞서 아직도 상영하는 작은 독립영화관들이 있습니다.
독립영화관의 상영 영화 목록에는 주인장의 철학과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호숫가마을영화제의 극장 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을 이웃과 나눠주세요.

4.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극장 주인은 이웃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선한 부담을 집니다.
나머지 부담은 최소화합니다.
극장 주인은 영화로써만 관객을 맞이합니다.
간식 따위, 나머지는 관객이 챙겨갑니다.
영화 마치면 관객 스스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나옵니다.
5. 감상료가 없습니다.
이웃과 나눌 간식과 극장 주인에게 전할 감사 쪽지나 편지, 작은 선물을 준비해주세요. 허락하신다면 극장 주인을 꼭 안아주세요.

돈 들지 않고 큰 공간 필요 없고 활동가가 할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이에 상관하는 관계의 영역이 촘촘하고 넓은 활동입니다.

이외에도 무지개도서관, 불눈생태자연도서관, 작은도서관 모락모락, 행복한마을작은도서관이 함께 했습니다.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컨설팅,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를 연구합니다. 어린이 책,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와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살아온 길

- 1998.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 1999.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발간
- 2001. 어린이도서관용 분류법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 2004. 문화관광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광부 제3호)
- 2005.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 문광부에 등록
- 2006.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집 출판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사업)
- 2007.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법인명칭 변경, 문화관광부 승인
- 2008. 마포구 작은도서관 3개관 수탁운영, 전국 어린이책 잔치 한마당
- 2009. 도서관의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문헌 및 사례연구(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 지원)
- 2010. 전국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문예진흥기금), 2010~2014.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011~2011.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음악회(서울시지원)
- 2012~2013. 청소년 인문학 소풍(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원) 2012~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아름다운가게 지원)
- 2013~2015.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수탁 운영 2013~2014. 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 옴니버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2014.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 201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로 명칭 변경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북유럽도서관탐방 (도서문화재단씨앗), 서울SH작은도서관 강남레미안포레, 서초 포레스타3,5단지 위탁운영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 2016.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일본도서관탐방 (도서문화재단씨앗), 016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포럼
- 2017.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도서문화재단씨앗), 싱가포르 도서관탐방
- 2018.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도서문화재단씨앗), 마포사랑방인문학 독일 메르헨가도 탐방 #작은도서관무슨책읽어? 캠페인

구성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 총 10개 지부(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 광주, 대구, 경상, 서울, 인천, 충청, 호남)와 어린이서비스 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총 7개 지역협의회(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 성북구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성남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을 포함 총 253개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이 마을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서, 책문화 콘텐츠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진행.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작은도서관의 조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책 문화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학교와 워크숍 진행.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실무자 재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자료 발간
 - 1999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 2005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 2006년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사)어린이와 도서관』
 - 2007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 2008년 『도서관에 엄마가 있다 : 품앗이를 위한 도서관학교』
 - 2010년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 2010년 『전국 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 2013년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 2014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2015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5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5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결과자료집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똑똑똑』,
『북유럽도서관을 듣다』
 - 2016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6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6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 2017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7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 다양한 독서 및 도서관 사업
 - ①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농어촌, 도서벽지 등 책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교생 150명 이하의 학교에 책 돌려보기,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음.
 - ②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

행,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

- ③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 서울 아름다운가게 배분사업
서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및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
- ④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 작은도서관에 작가 및 독서 문화예술 강사 파견
- ⑤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 작은도서관에 주 2-3회 독서활동가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작은도서관 포럼 및 연구 활동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포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포럼진행

주제 종류	주 제
현안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과 SH도서관의 방향성
현안	작은도서관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
현안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과 과제
현안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활성화와 활용방안
현안	순회사서 제도에 대한 진단과 방향
현안	작은도서관 표준조례 연구
현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제안 방향과 내용
사례	공립작은도서관 모범사례 발표와 방향
사례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모범사례와 방향
사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연계 사례와 과제
연구	작은도서관 통계에 따른 변화와 앞으로 과제
연구	작은도서관 책문화 활동 방향과 기획
연구	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방향과 과제
연구	작은도서관 이용자 분석과 그에 따른 서비스 방향
연구	작은도서관 기초장서 목록 필요성과 목록의 방향
연구	작은도서관 간략 분류법 연구

서울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18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기금 자료집

기 공 변
역 부 신
와 하 하 하
다 다 다

발행일

글쓴이 책돌이도서관외 9개단위, 강아지똥 작은도서관 외 45개관, 곱빛나, 이권우 외 4인

발행인 박소희

발행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디자인·제작 디자인센터 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홈페이지 www.smalllib.org